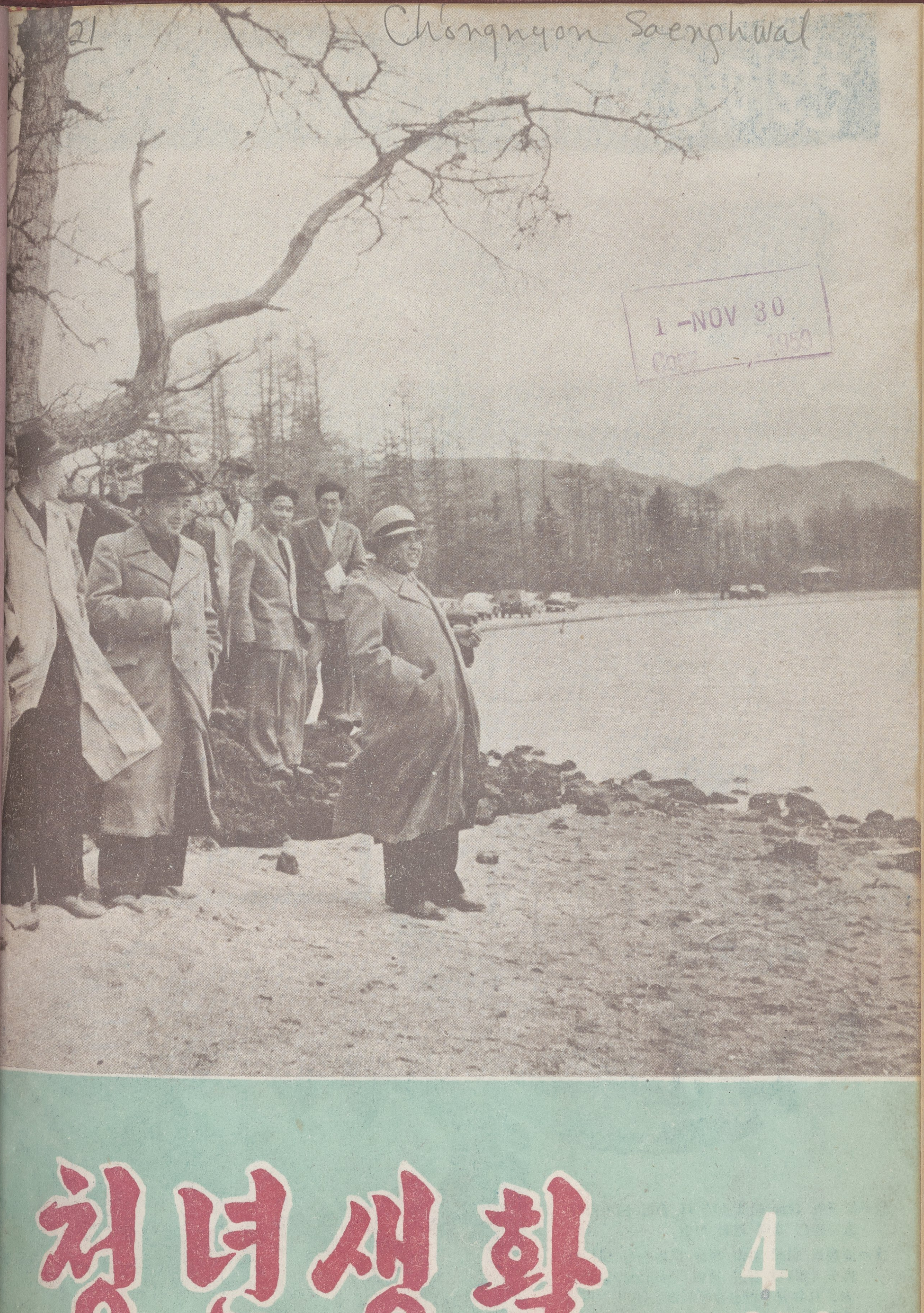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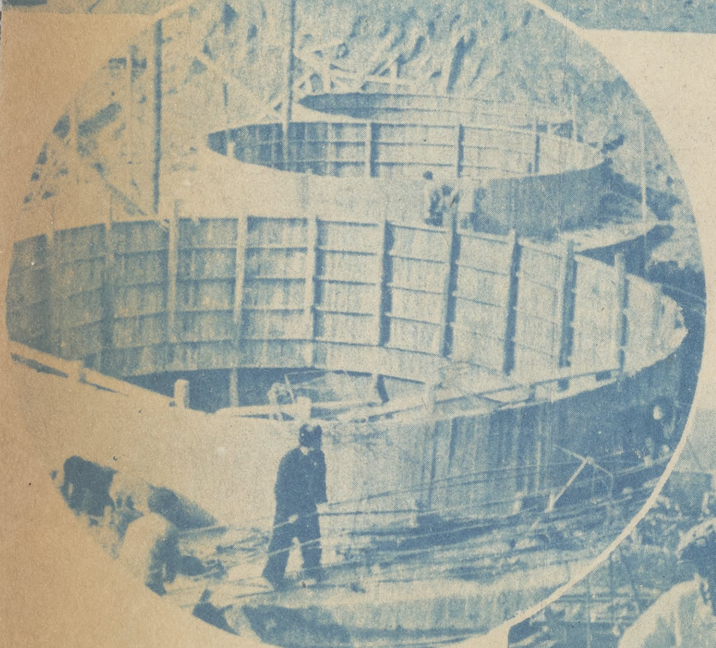
청년생활

4

1959

천리마로 달리는 청년 사회 주의 건설자





민주 수도—

평양시 건설장에서



상—중구역 건설 트레스트 15 종합 브리가다 청년들의 주택 건설 작업.

중—교통성 외부 교량 건설 트레스트 제1 사업소 <비아> 철근 조립 브리가다원들의 제2 대동교 건설장에서의 <비아> 철근 조립 작업.

하—대동강 제2 계단 공사에 동원된 평양 고등 운수 전문 학교 학생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차 례

4
(115)
1959

편집 위원 리 홍종 (주필)
천 성근 박 춘실 지 장린
김 상민 송 선경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1959년 4월 1일 인쇄
1959년 4월 10일 발행
(값 30전) ㄱ—30193　　100,000부 발행

(권두언)

김 일성 동지의 로작을 더욱 깊이 학습하자

오늘 우리 나라는 력사 발전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 섰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경제 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보의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 앞에는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과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을 촉진하여야 할 새롭고 방대한 임무가 나서고 있다.

새로운 임무는 우리 나라 근로 대중과 특히 젊은 세대들이 공산주의적 각오와 선진 과학 리론 및 기술 문화 수준을 가일층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은 우리에게 맑스—레닌주의를 깊이 학습하여 과학적 세계관과 혁명적 리론 및 방법을 철저히 체득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맑스—레닌주의의 학습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나라 혁명의 실천과 결합시키는 태도와 방법을 견지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우리 일'군들이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을 연구하는 태도는 이 리론의 일반적 원리에 근거하여 조선 혁명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연구 분석하고 우리 앞에 제기된 실천적 과업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하였다.

맑스—레닌주의 학습에서 우리는 맑스, 엥겔스, 레닌의 로작과 함께 김 일성 동지의 로작을 깊이 학습하여야 한다. 과학적 공산주의 리론의 창시자인 맑스와 엥겔스 그리고 그를 새로운 력사적 시기에 가일층 발전시킨 레닌은 우리에게 혁명 투쟁의 일반적 방향과 일반적 지도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에서의 혁명과 공산주의 건설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해 줄 수는 없었다. 혁명은 매개 나라의 실정에 따라 그 나라의 인민 자체가 수행하는 것이므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임무를 정확히 해결한 분은 김 일성 동지이다. 김 일성 동지는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 인민을 항상 혁명 승리에로 확고하게 인도하였으며 또 인도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은 그 어느 것을 물론하고 8. 15 해방 전후를 통하여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매 계단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리론적 및 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씌여진 것이다. 거기에는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조선 혁명의 실천을 결합시킨 사상이 관통되여 있다.

1930 년대에 작성된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이 바로 그러하다. 이 강령은 우리 나라에서의 첫 맑스—레닌주의적 강령이다. 여기에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혁명적 요구 즉 인민 정권을 수립하며 제반 민주주의적 변혁들을 실시하여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할 과업이 천명되였다. 이 정치 로선은 8. 15 해방 후 우리 당이 제시한 4대 당면 과업과 20개조 정강 그리고 우리 당의 강령에서 더욱 발전 되였다.

수상 동지의 로작들에는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 그리고 혁명의 매 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체현되여 있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반영되여 있다. 거기에는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및 동력에 대한 과학적 규정과 혁명 수행을 위한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 방침이 명시되여 있다.

전후 사회주의 건설기에 집필된 로작들에는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총로선이 천명되여 있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적 발전 로선—이것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발전과 풍부화에 기여한 김 일성 동지의 위대한 기여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 있어서 청년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들의 교육 교양에 육친적 배려를 돌렸으며 우리 나라 청년 운동의 방향과 매 시기의 임무를 밝혀 주었다. 그리하여 수상 동지의 교시는 언제나 민청의 활동과 청년들의 생활, 로동, 학습의 강령적 지침으로 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외에도 자기의 로작에서 우리 혁명 수행과 관련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다방면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수상 동지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 혁명의 실천과 결합시키면서 각종 반맑스—레닌주의적 견해와 기회주의, 수정주의 등에 대하여 타협 없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김 일성 동지의 모든 로작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조선 혁명의 실천을 결합시킨 창조적 정신과 무궁한 생명력과 전투성으로 일관되여 있으며 그것은 인민들과 청년들에게 장악되여 위대한 물질적 힘으로 전변되였다. 실로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은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혁명의 승리를 쟁취함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로 되였으며 또 앞으로 승리를 쟁취함에 있어서도 위대한 무기로 된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사상적 무기를 장악하고 생활에 구현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그리고 공산주의에로의 전진 운동을 촉진함에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심각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는 오직 김 일성 동지의 로작을 진지하게 학습함으로써만 맑스—레닌주의 세계관과 공산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정확히 리해하

고 그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를 관철시킴에 있어서 김 일성 동지의 로작 학습은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 학습에서 김 일성 동지의 로작은 우리의 기본 교재로 된다.

우리의 많은 청년들은 수상 동지의 로작을 학습하였으며 또 성실히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청년들은 로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못하였다. 학습을 한 청년들도 로작의 심오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정치적 경험과 리론 수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학습한 로작들도 반복하여 학습할 때 만이 그 심오한 사상을 리해할 수 있다. 수상 동지의 로작 학습을 더욱 강화할 현실적 필요성과 의의는 이와 같이 절실하며 심각하다.

청년들은 로작을 학습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확한 태도와 방법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을 실천과 결합시키며 체계적으로 심오하게 연구하는 문제이다. 리론과 실천의 련계는 우리 당이 교시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학습 방법이다. 우리는 로작의 학습을 우선 자기의 사상 단련과 매일의 로동, 그리고 일상 생활과 결합시켜야 한다. 로작에 담겨진 사상을 자기의 사상으로 만들어 그 사상이 가르치는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로작에 천명된 혁명 과업을 자기의 매일의 로동과 공작에 구현시키며 로작이 밝혀 주는 관점과 방법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오직 이러한 학습 태도를 확립하여야만 로작의 진리를 체득할 수 있다.

로작의 학습은 심오하고도 체계적이여야 한다. 매개의 로작과 로작의 매 장, 매 명제는 심오한 사상 리론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심오하고 풍부한 사상 리론적 내용을 체득하자면 학습에서 진지하고도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동시에 로작이 우리 혁명의 매 계단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그것은 정연한 체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학습도 응당 체계적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청년들이 목전 수행하고 있는 혁명 과업과 사상 생활에서 당면한 문제와 관련 있는 로작을 선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경축 대회에서 하신 보고》는 전체 청년들이 계속 반복 학습하여야 할 문헌이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농업 협동화의 승리와 농촌 경리의 금후 발전에 대하여》는 전체 청년들과 특히는 농촌 청년들이 계속 학습하여야 할 력사적 문헌이다.

장구한 혁명 투쟁에서 세련된 김 일성 동지를 위시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지도적 핵심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시키면서 우리 인민을 휘황 찬란한 사회주의—공산주의에로 확고하게 인도하고 있다.

전체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의 로작을 더욱 진지하고 심오하게 학습하여 맑스—레닌주의 혁명 사상과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공산주의 붉은 기를 높이 추켜 들고 당이 가리키는 승리와 영광의 길로 확신 있게 전진하자.



심장이 고동치는 한

윤 대 홍

1937년 겨울—전례 없이 혹독한 추위와 깊은 눈이 동북 산야를 뒤덮었다. 당시 우리 부대가 활동하고 있던 장백령 기슭에도 눈이 길길이 쌓여서 키 높은 이깔 나무마저 겨우 우두머리만 내다 보이는 데가 많았다. 모닥불을 피우고 쉬느라면 어느 결엔가 두세 길씩 되는 눈 속으로 사람과 불무지가 한데 자자들군 하였다.

행군을 하기 위하여 다시 눈'구뎅이 속에서 기여 나와 머리를 들면 거센 바람과 맵짠 눈'가루가 금시 숨이 막히도록 얼굴을 후려 갈겼고 땀과 눈에 젖은 옷은 쇠가죽처럼 팟팟하게 얼어 버려서 팔다리를 놀리기가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김 일성 원수와 그의 사랑하는 전사들인 항일 빨찌산 대원들은 따뜻한 온돌이란 생각 조차할 수 없는 산과 들에서 먹고 잤으며 때로는 며칠씩 굶으면서도 강도 일제와의 격렬한 싸움의 길로 달려 나갔다. 어느 누가 이 길을 고되다 했으며 배고프다 했던가, 《억천 만번 죽드라도 원쑤를 치자!》는 일념이 였고 자국마다 한치 한치 혁명의 승리와 사랑하는 조국을 찾는 굳센 걸음들이 였다.

김 일성 원수의 명령으로 1사 사단 지휘부의 일부 간부들을 호위하면서 우리가 장백령을 넘어 먼 행군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때의 일이다. 적들의 《토벌》을 물리치면서 무인지경인 삼차자령 령 밑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량식이 떨어졌으나 보충 받을 곳이 없었다.

바위산 전투를 하게 된 그날은 이틀째 불 조차 피우지 못했고 더운 물 한모금 마시지 못했다. 그러면서 계속 험준한 령을 넘고 사나운 눈보라 속을 헤치며 나아 가느라니 지친 몸은 돌에 눌린듯 무거웠고 땀은 계속 흘렀다.

그럴 수록 우리는 휴식 시간을 더욱 단축하면서 행군을 계속했다. 굶주리고 지친 몸들이 혹한 속에서 활동을 정지한다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적들은 또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우리를 《토벌》하겠다고 개처럼 싸대던 적들이 인원을 보충 받아 가지고 장백령 뒤'등으로부터 달려 넘어온 것이다.

이때의 아군의 력량은 지휘부 인원과 내가 인솔하는 경기관총 분대원들 17명까지 합하여 불과 70명 뿐이 였다. 또한 우리는 지형상으로도 극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 속에서 비록 어방치기로 내두르는 적들의 총탄이였지만 수량상으로 워낙 많은 놈들의 화력이라 골짜기 안은 금시에 뒤집히는 듯 하였다.

우리는 지휘관의 결심에 따라 급히 벼랑 밑으로 다가 붙었다. 그리고 총은 한 방도 쏘지 않고 우선 침착하게 적정을 살폈다. 적들은 등마루와 벼랑 턱에서 계속 경기를 란사하였고 동시에

반원형으로 포위망을 죄이면서 벼랑 아래 골짜기로 차츰 내려 오고 있었다.

위협은 각 일각으로 죄여들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당황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지휘관을 믿었고 지휘관은 우리를 믿었다. 이러한 일심 일체의 행동은 항상 승리를 떨치게 하였으며 바로 그러한 자부심으로 하여 우리의 가슴은 뜨거웠다.

공포에 질려 소란스럽게 날뛰는 것은 오직 적들 뿐이였다. 미친듯 짖어대는 기관총 소리와 아우성 소리…

얼마의 긴장한 시간이 흘렀다.

뼈'속까지 얼어드는 듯한 혹독한 추위 속이였지만 저마다 차디찬 총신을 가슴에 품고 엎드려서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는 대원들의 얼굴에서는 열기가 활활 피여 올랐다. 참으로 지휘관의 숨소리 하나 놓칠세라 온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 나의 품에서도 기관총의 총신이 따뜻한 체온을 받아 들이면서 《어서 저 원쑤들에게 마음껏 불을 뿜게 해 달라!》는 것 같았다.

사실 우리가 자기 심장의 한 부분처럼 여기는 무기는 마치 생명을 가진 것처럼 잠을 잘 때에도 품 속에 안겨 꿈을 즐겁게 해 주었다. 《어서 원쑤에게 마음껏 불을 뿜게 해 주!》

나는 그때도 이러한 심정으로 웃자락 밑에 기관총을 더 당겨 안으며 지휘관에게로 계속 눈'길을 돌렸다.

적들의 흉악한 기도와 약점을 민속히 포착하고 지형 지물을 세심히 판정한 지휘관은 드디여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우선 내가 책임진 한 개 분대(경기관총 분대)로 하여금 벼랑 우에 있는 적들의 시선이 한곳으로 쏠리도록 유인하면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였다. 그리고 이틈을 타서 리 련대장이 지휘하는 기본 력량은 사나운 눈보라와 험준한 골짜기를 리용하여 적들의 배후인 산마루에 오르라는 것이였다.

이러한 지휘관의 명령은 지체 없이 행동에 옮겨 졌다. 비록 여러 날의 어려운 행군과 굶주림에 지친 몸들이였지만 명령 앞에 항상 승리를 확신하는 일념과 수백 수천 차례의 가렬한 싸움과 산악 지대에서 단련된 체력들인 데다 눈앞에 적들을 바라볼 우리의 몸에서는 산이라도 뒤엎을 듯한 힘이 솟았다.

나는 기관총을 들고 벼랑 우측 선두에 서고 김 택만 동무는 벼랑 좌측 선두에 서서 각각 3명씩의 보총수들과 함께 벼랑 우의 적을 향하여 기여 오르면서 맹렬한 사격을 시작했다.

아츨하게 깎아지른 듯한 높은 절벽, 그 우에 있는 적들을 향하여 올려 쏘는 우리의 사격이 적들을 소멸하는데 완전한 역할을 놀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적들의 시선을 우리에게로 집중시키면서 아군 부대의 기본 주력을 골짜기 우로 탈출시키고 적들의 배후인 동마루로 오르게 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였다.

적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리고 화력이 교차되는 틈을 타서 아군의 기본 주력이 산마루로 기여 오르는데 성공하였고 반격 태세를 갖춘 것은 약 20~30분 후이였다.

이 사이에 우리 분대는 《돌격!》소리를 치면서 달려 내려 오는 놈들부터 쏘아 눕혔다. 그중에 어떤 놈들은 급한 벼랑 끝에 달려 나왔다가 우리의 총탄을 맞고 허궁 물구나무를 서면서 우리들이 기여 오르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놈들도 있었다. 이렇게 바위산 절벽의 경사는 급했다.

우리가 적들의 턱 밑을 치받아 오르면서 올리 사격을 맹렬히 전개하자 절벽 우의 적들도 더욱 더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적아 간의 격렬한 총소리는 귀가 먹먹하도록 골짜기 안을 뒤흔들었고 사나운 눈보라와 적들의 아우성 소리는 절벽을 휩쓸고 있었다.

이렇게 얼마간 시간이 또 흘렀다.

이제 아군의 기본 력량이 적들의 배후로부터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는 포위 상태에서 벗어 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들을 포위하고 뒤집어 때리게 될 것이였다. 그러나 이때 우리 분대에는 사격을 계속할 수 있는 무기는 불과 몇자루 없었다. 내가 사격하던 경기도 이미 사격을 중지하게 되였고 다른 동무들의 무기도 거의 빈 총 뿐이였다. 다만 내가 예비로 차고 있던 싸창과 김 택만 동무가 차고 있던 싸창만이 한 탄창씩의 탄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가? 산 우로 기여 올랐을 아군 주력은 거의 한 시간이 넘도록 감감 소식이 없었다.

게다가 절벽은 우로 오를 수록 더욱 더 행동하기 어려웠고 바위 우에는 얼음이 뒤엉켜서 발을 옮겨 디디기 힘들었다. 그러나 나는 지휘관의 명령을 굳게 믿었다. 《적들의 시선을 한곳에 집중시키면서 맹렬히 반격하라! 그리면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라!》

나는 약 30 메터 좌측에서 머리만 내다 보이는 김 택만 동무와 서로 손 신호를 해 가며 번갈아 사격을 계속했고 한 걸음씩 우로 기여 올랐다. 머리 우에서 무너져 내리는 눈이 계속 뒤덮이므로 총 한 방을 쏘고는 한참씩 눈을 헤쳐야 했으며 한 발걸음을 옮기고도 뒤덮이는 눈 속에서 몸을 끌어내야 했다.

이렇게 하여 우리들의 사격이 뜸해지면 적들의 기관총 사격은 더욱 심해졌다. 마침내 적들은 다섯 정이나 되는 경기를 벼랑 끝에 걸어 놓고 함부로 불을 뿜기 시작했다.

머리를 들면 적의 탄알이 귀'등을 스치고 절벽에 몸을 붙이면 무너져 내리는 눈이 계속 뒤덮혀서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 수록 이런 위험과 곤난은 아무렇지도 않고 아군 주력의 그후 일이 궁금하고 가슴 아팠으며 적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증오로 당장 절벽 우로 기여 올라 가서 육박전을 전개하고 싶은 생각이 부쩍부쩍 머리를 추켜 들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한 쪽 겨드랑이에 경기관총을 껴안고 눈 속에 몸을 묻어가며 계속 기여 올랐다. 이 때 내 뒤를 따라 오르던 김 택만 동무가 다급히 소리쳤다. 《아, 분대장 동무! 머리 우를 조심하세요, 적들이…》

그 소리에 나는 머리를 들었다. 적들의 경기관총 총구가 바로 손이 닿을 듯한 곳에서 불을 뿜고 있었다. 이 순간 내 머리에는 적의 경기관총을 빼앗을 생각이 떠 올랐다.

나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몸을 올려 밀었다. 팔 소매 없는 개털 동걸이에 털 모자를 뒤집어 쓴 왜놈 헌병들이 벼랑 우에 싯누렇게 엎드려서 골짜기에 대고 마구 총을 쏘아대는 것이 보였다.

《옳지 됐다.》 하고 나는 탄알이 없는 경기를 바른 손에 옮겨 쥐며 눈 속에 몸을 푹 파묻었다. 그리고 물 속을 헤쳐 나가듯이 머리만 들고 배밀이로 벼랑 턱을 기여 올랐다.

× ×

이때 기본 주력을 인솔하고 산마루로 올라간 리 련대장은 안타깝게 골짜기 쪽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는 만단의 반격 태세를 갖춤과 동시에 경기관총 《분대원들은 속히 퇴각하라!》는 명령을 주어 련락병을 파하였다. 그런데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도록 골짜기 아래서는 분대원들이 퇴각을 하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골짜기 아래서 들려 오는 총소리는 점점 더 격렬하여 지고 적아 간의 거리는 차차로 좁혀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일가?!…》 동마루에서 초조히 기다리고 있던 지휘관은 이렇게 혼자 소리를 하면서 두 서너 걸음 더 앞으로 나서서 산마루 아래를 굽어 보았다.

그러나 사나운 눈보라 속에 덮인 뒤' 골짜기에서는 총소리만이 자지러지게 울릴 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경기관총 분대원들이 너무 깊이 달려 들었다가 적들에게 휩싸여서 악전에 빠진게 아닐가!?…》

너무 대담한 것이 오히려 념려될 지경인 귀중한 대원들에 대해서 가슴을 죄이고 있던 리 련대장은 또 다른 련락병을 파하기로 하였다.

사실 우리 분대가 적들과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조건하에서는 아군 주력이 적의 배후를 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분대가 있는 골짜기로 다시 내려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지휘관은 리 동화 련락병을 우리 분대에 거듭 파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파견한 리 동화 련락병도 얼마쯤 내려 오다가 적들의 총탄에 왼쪽 다리를 맞고 눈 속에 엎어졌었다.

이때는 우리 분대가 이미 절벽 우로 거의 기어 올랐으며 김 택만 동무와 나는 각각 적의 경기 한 문씩을 목표로 행동을 개시할 때 였다.

제 정신 모르고 미친 듯이 불을 뿜던 왜놈의 경기 사수 하나가 바로 턱 밑에 다가든 나를 발견했는지 무어라고 기겁스런 소리를 치며 총구를 나에게로 돌리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 때 나는 눈 속에서 뛰여 일어 났을 때이고 손에는 싸창이 들려 있을 때 였다. 나는 왜놈의 경기 사수와 부사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세 명의 왜놈 헌병을 련거퍼 쏴 갈겼다. 왜놈의 경기 사수를 벼랑 끝에 차 던지고 그놈의 경기를 집어든 나는 계속 그 부근에 있는 놈들을 휘둘러 갈겼다. 이 때 벼락불을 맞고 쓰러지는 왜놈들은 별의별 기괴한 비명을 다 질렀다. 그러나 나는 그놈들을 거들떠 볼 사이가 없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웃턱에는 아직도 수 없이 많은 적들의 기본 주력이 있었고 내가 경기를 앗아뺀 지점에도 적들이 남아 있어 눈보라 속에서 나타나며 저항하였다.

로획한 경기를 잡은 채 나는 급히 사격 위치를 정하고 엎드렸다. 그리고 뒤에 올라오는 분대원들을 엄호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후에 안 일이지만 이때 나의 좌측에서 나타난 김 택만 동무는 두 곳이나 부상을 당하여 가면서 끝내 적의 경기 사수 한 놈을 쏴 눕히고 경기 한 문을 또 빼앗아 들었다. 좌우에 쏟아지는 적탄을 돌볼 새 없이 경기를 두르며 앞 고지 턱 밑에 뛰여 든 내가 적의 기본 주력이 있는 방향에 불을 뿜기 시작하였을 때에 바로 김 택만 동무가 나의 좌측에서 뛰여 나가며 적을 향하여 련발 사격을 하는 것이 보였다.

이에 기운을 얻은 나는 더욱 용기를 내여 계속 적들에게로 기어 오르며 련발 사격을 퍼부었다.

× ×

한편 리 동화 련락병은 부상 당한 다리를 절룩거리며 적들이 죄여드는 마즌편 산 턱을 더듬어 내리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을 잃고 또 다시 주저 앉아 버렸다.

그는 적탄에 거듭 부상을 당한 것이였다. 그는 눈 무지를 짚고 일어나려 하였으나 바른쪽 다리마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안타깝게 입술을 깨물며 다리를 보았다. 이미 부상 당한 다리에 감았던 헝겊은 어느 틈엔가 풀어져 버렸고 거듭 부상을 당한 오른쪽 무릎 마다에는 시뻘건 피가 내돋고 찢어진 옷자락에는 하얀 눈이 피 우에 덛 묻어 있었다.

그는 분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옷자락을 찢어서 상처를 동이고 벌떡 일어 났다. 그러나 다리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고 상반신이 앞으로 숙어지며 엎어 졌다. 그는 그만 벼랑 밑으로 굴러 떨어 졌다.

《이 일을 어쩌나—》

상처의 아픔보다도 련락을 보장해야 할 책임감이 동화 동무의 가슴을 죄였다. 그는 눈 우에 떨어 뜨린 총을 더듬어 들고 엎디여 기기 시작하였다. 내리막길이기는 하였으나 얼굴을 휩싸 갈기는 눈보라가 앞 길을 방해했다. 그런 데다가 목갑에 든 싸창이 자꾸 흘러 내려서



오른쪽 팔'굽을 때리기 때문에 그는 얼마 기지 못하고 눈 우에 엎드린 채 숨을 돌렸다.

총 소리로 판단해서는 경기관총 분대원들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급한 경사를 골라서 굴러 내리기로 하였다.

위험하기는 하지만 분대원들을 단 일 분이라도 속히 만나는 데는 더 쉬울 것 같았다.

그는 경사진 데를 찾아서 골짜기 아래로 다리를 뻗고 손으로는 눈을 짚으며 몸을 콱 내밀었다.

상한 다리를 몇 번인가 나무 옹이에 부딪쳐 깜박깜박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고통을 받았으나 엎드려서 기기 보다 빠르게 골짜기로 내려 갈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다행이라고 생각되였다.

그러나 골짜기에 다 내려간 그는 총 소리를 분간해 들으며 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는 손마저 얼어서 마음대로 놀려지지 않았다. 눈도 부어나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럴 수록 리 동화 동무의 머리속에는 지휘관의 명령이 력력히 떠올랐다.

《경기관총 분대의 위급을 구하는 것도, 전체 부대의 승리를 빠르게 하는 것도 나의 임무 수행 여부에 크게 달렸다.》

이런 생각이 동화 동무를 채찍질 했다. 그는 끝내 분대원들이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 그는 부은 눈을 문지르며 벼랑 턱을 바라 보았다. 눈보라 속으로 얼씬얼씬 보이는 것은 경기관총 분대원들이 분명했다.

《아, 여기들 있었구나》

리 동화 동무는 기뻤다. 그래서 목이 멘 소리를 지르며 급히 일어 서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는 일어설 수 없었다.

눈 우에 엎으러진 그는 더욱 더 참을 수 없는 적개심이 가슴을 태웠다. 그리고 그는 또 생각했다.

—전우들이 내가 부상 당한걸 안다면… 그렇다 그들은 급히 퇴각하여 아군 주력으로, 하여금 적들을 몽땅 소멸하게 해야할 터인데… 나를 업거나 끌고 가느라고 이 이상 더 시간이 지체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의 눈 앞에는 산 우에서 초조해 할 지휘관과 전우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한 놈의 적이라도 더 오래 살궈 놓을 수 없으며 한 놈도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명령을 들을 때처럼 머리 속에 훤히 떠올랐다.

그는 목갑에서 재빨리 싸창을 뽑아

들고 눈 속에 다리를 묻은 채 엉거주춤히 허리를 폈다. 그리고 분대원들을 향하여 소리를 쳤다.

지휘관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 짧은 사이에도 그는 상처의 고통으로 하여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지경이 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언덕 우에 있는 동무들에게 지휘관의 명령을 알려 줄 수 있었고 동시에 자기의 부상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뻤다.

그는 분대원들이 후퇴하기 시작할 때에 눈보라 속을 리용하여 빠졌다.

사나운 눈보라로 하여 눈 앞이 더욱 흐려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는 절반 손짐작으로 언덕을 의지하고 나무 그루들을 잡아가며 절벽 쪽으로 기여 갔다.

그러면서도 그는 분대원들의 총소리가 차차 멀어 지고 적들의 총소리가 골안으로 몰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그만 기운이 진하여 나무 밑둥을 그러 안은 채 쓰러졌다. 그리고 머리를 눈 속에 묻어 버렸다. 잠시 동안 그는 정신을 잃었다. 모진 눈보라가 그를 뒤덮는 줄도 몰랐다.

요란한 총소리와 눈보라 소리가 얼마를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그 뒤를 이어 빨찌산의 함성 소리와 적들의 비명 소리가 일어 났다.

그 뒤에도 얼마 후에야 동화는 머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고 깊이 뒤덮인 눈 속에서 거의 본능적으로 가슴에 품은 싸창을 꼭 그러 안았다.

—숨이 살아 있는 한 무기를 손에서 놓치 말라— 그의 심장이 높이 뛰고 있었다. 이럴 때에 어디선가 지휘관과 동무들이 그를 찾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차츰 정신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눈보라 소리도 느꼈고 골짜기 안에 어둠이 짙어 오는 것도 알게 되였다.

《아! 다들 어떻게 됐을가?!…》

그는 상처의 모진 고통 보다도 지휘관과 전우들이 참을 수 없이 그리웠다. 그는 머리를 들었다. 그리고 문득 그는 어디선가 웅성대는 목소리를 들었다.

《적이냐? 아군이냐?》

동화 동무는 이렇게 소리쳐 보고 싶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가지 않았다.

그는 싸창을 꺼냈다. 싸창의 손잡이를 더듬어서 방아쇠에 손'가락을 꽂은 그는 다시 귀를 기울였다. 그의 귀에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동화 동무는 총구를 하늘로 추켜들고 간신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이 총소리는 동화 동무를 찾고 있던 전우들을 기쁘게 했다. 얼마 후에 그는 전우들의 등에 업히여 산마루로 올랐다.

적을 섬멸한 지휘부와 전우들은 다른 부상자들과 함께 리 동화 련락병도 서로 번갈아 업으면서 행군의 길에 올랐다.

나는 이 전투에서만 하여도 우리 전우들이 어떻게 싸워 승리하였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알 수 없으며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체험한 것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리 동화 동무의 이야기 만을 극히 약하게 전하는 데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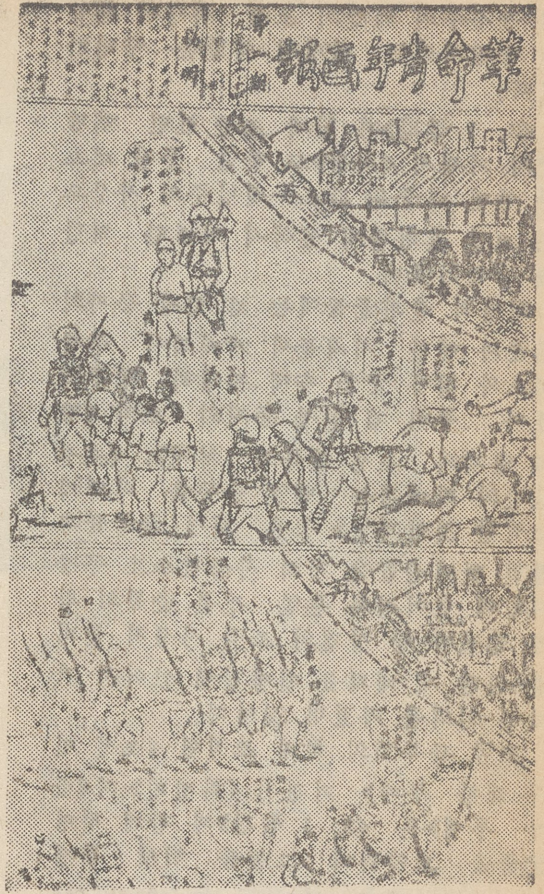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의 혁명적 출판 활동

채 준 병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영웅적 항일 무장 투쟁에서 강유력한 사상적 무기로 된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출판물들을 발행하였다.

일제의 야수적 탄압이 계속되는 어려운 조건하에서 신문 《투쟁》, 《반일보》, 《전투 일보》, 《서광》과 잡지 《3. 1 월간》, 《화전민》, 《반일 투쟁》, 《전기》, 《홍기》, 《국제 뉴스》 등을 비롯한 수많은 신문, 잡지, 소책자, 격문, 삐라들이 출판되였다. 이 혁명적 출판물들은 맑스—레닌주의 출판물의 고유한 특성—철저한 당성, 고상한 사상성, 진정한 인민성과 대중성을 구현한 혁명적 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창조하였다.

혁명적 출판물의 주요 목적은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인민 대중을 반일 민족 통일 전선에 굳게 단결시키여 그들로 하여금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적 핵심을 신임하게 하며 인민 혁명군이 자기들의 군대라는 것을 인식시키며 또한 항일 빨찌산들을 백전 백승의 강유력한 혁명 군대로 교양 육성하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인민 혁명군 창건과 동시에 발간된 그의 기관지 《투쟁》, 《전투 일보》, 《반일보》 등은 이 목적 수행에서 큰 역할을 놀았다.



1935년 항일 민족 통일 전선으로서의 조국 광복회가 창건되자 그의 기관지인 《3. 1 월간》은 그의 조직망을 확대하며 항일 무장 투쟁과 대중 운동을 결합시키며 공산주의자들을 유일한 투쟁 로선에로 집결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3. 1 월간》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일관한 비합법적 정기 간행물로서 국내외에 있는 혁명적 출판물들과 정치 공작원들과 통신원들이 보내준 통신들에 근거하여 출판되였다.

《3. 1 월간》은 맑스—레닌주의를 보급시키며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을 해석 선전함으로써 조선 혁명의 제 과업과 그의 수행 방도들을 천명하고 혁명 군중을 정치 사상적으로 교양하는 동시

에 공산주의 대렬의 조직 사상적 통일을 촉진시키는 혁명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3. 1 월간》과 함께 조선 인민 혁명군의 기관지 《서광》도 항일 무장 대오와 인민 대중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 훈련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혁명적 출판물들에는 김 일성 동지의 론문과 명령 지시들이 게재되여 무장 대오와 혁명 군중 속에 광범히 침투되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로작 《강도 일제와 조선 민족의 처지》, 《조선 인민의 확대되는 반일 운동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등은 혁명 군중들과 항일 빨찌산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무장시킴에 있어서와 통일 전선 운동의 확대 발전과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를 위한 제 대책을 천명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졌던 것이다.

조국 광복회의 국내 조직인 《조선 민족 해방 동맹》 기관지 《화전민》과《반일 투쟁》은 《3. 1 월간》과 함께 혁명 군중을 교양하며 그들을 혁명 투쟁에 궐기시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정치 독본》, 《레닌주의 제 문제》(번역판),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임무》, 《혁명 가곡집》 등 수 많은 단행본, 소책자들을 비롯하여 수 많은 격문, 삐라들이 출판되였는바 특히 격문, 삐라들의 전투적 역할이 대단히 컸다. 항일 투쟁 초창기에 벌써 발간되기 시작한 격문, 삐라들은 항일 빨찌산들의 전투 임무 수행과 지방에 파견되는 정치 공작원들의 공작 활동에 광범히 리용되였다. 일제 타도를 위한 조중 인민의 공동 투쟁 과업과 사회주의 쏘련 옹호 지지, 무장한 적을 무장으로써 쳐부시자는 전투적 내용을 가진 격문들과 삐라들은 항일 대오 속에서는 물론 광범한 인민 대중들의 항일 투지를 고무하는 유력한 힘으로 되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께서 직접 령도하는 인민 혁명군 부대의 조국에로의 진군과 함께 격문, 삐라들은 국내 각지에 광범히 전파되였다. 그의 일례로 1937년 6월 력사적인 보천보 전투시에 김 일성 동지의 포고문과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 《조선 인민에게 격함》 등을 비롯한 격문, 삐라들이 수 많이 산포되여 일제의 기반하에서 신음하던 조선 인민들에게 조국 광복회에 대한 굳은 신심과 원쑤 일제에 대한 불 같은 증오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이름으로 발표된 포고문은 조선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었는바 포고문은 일제의 극악한 파쑈 통치와 략탈 정책하에서 조선 인민이 겪고 있는 비참한 노예적 처지를 지적하면서 전체 인민이 일제와의 결정적 투쟁에로 궐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포고문은 조선 인민 혁명군의 고국 진군의 정치 군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무장 투쟁의 확대 강화만이 일제 타도와 민족 해방의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면서 전체 인민들이 무장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할 것을 강조하였다. 포고문은 끝으로 조선 인민은 일제를 타도하고 자기의 손으로 인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나설 것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적 출판물로서의 당성, 사상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한 바로 이 혁명적 출판물들이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손에 무기를 들고 일어선 항일 빨찌산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조선 인민의 자랑이다.

이 시기에 발간된 혁명적 출판물들은 일제의 야수적 탄압 속에서 갖은 고난을 겪어 가면서 출판되였다. 출판물의 매개 글들은 항상 적을 앞뒤에 두고 싸우는 가렬한 전투 마당에서 씌워졌다.

초기에 항일 빨찌산들에게는 한 대의 등사기도 한 장의 등사 용지도 없었다.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적들에게서 빼앗아야 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적들이 가지고 있는 출판 도구—등사기, 잉크들을 탈취하는 것은 총과 탄약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간고한 투쟁이였다. 항일 빨찌산의 젊은 용사들은 바로 이 어렵고 위험한 일을 도시 진공 전투시 또는 지방 정치 공작 활동시에 수행하였는데 때로는 귀중한 생명과 바꾸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혁명적 출판물의 매 페지마다에, 한 장의 삐라, 격문, 한 통의 등사 잉크, 한 개의 등사기도 이 용감한 항일 빨찌산들의 피의 대'가 아닌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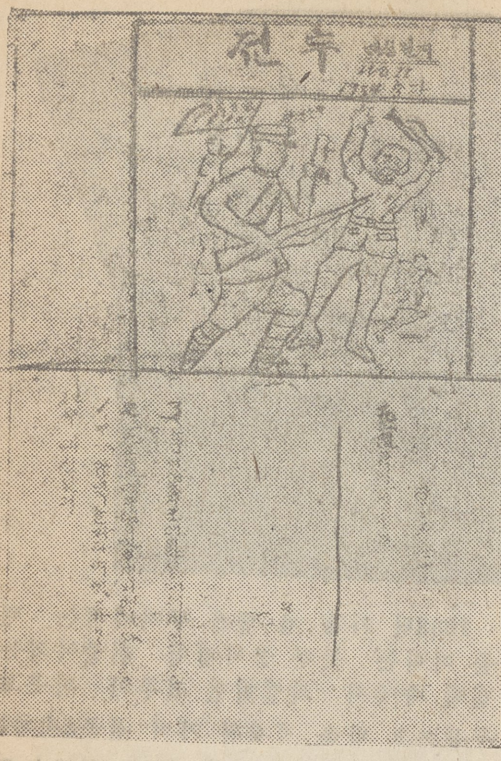
인민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싸우는 진정한 애국자, 참다운 혁명 투사들인 항일 빨찌산들이 아니고서야 이와 같이 숭고한 혁명적 투쟁을 어찌 전개할 수 있었겠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도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위험한 정황에서도 혁명적 출판물의 발행 보급 사업을 적극 도왔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하에서도 자기 집을 비밀 출판 아지트로 제공해 준 수 많은 로동자 농민들의 애국적 헌신성,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격문, 삐라들을 산포한 용감한 청소년들의 영웅적인 투쟁은 우리를 무한히 감격케 한다.

김 일성 동지께서는 항상 이 혁명적 출판 사업에 직접 참가하시면서 이를 지도하시였다.

1938년 가을 김 일성 동지께서는 뼈를 어이는 듯한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밀림 속에서 치렬했던 전투의 피곤도 무릅쓰고 밤을 지새워 가며 신문《서광》을 몸소 편집하시였으며 군사 통신원들의 원고를 보살피시였으며 직접 등사까지 하시였다.

바로 이렇게 출판된 혁명적 출판물이 항일 빨찌산들과 혁명 대중 속에서 그 얼마나 큰 교양의 힘과 고무적 영향력을 가지였는가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항일 빨찌산들은 신문, 잡지의 새로운 호가 나오면 앞을 다투어 모여와서 독보하고 다시 돌려 보았다. 그리하여 신문과 잡지들이 상하여 글이 잘 보이지 않으면 다시 베껴서 몇 번이고 곱씹어 읽었다. 각 지방에서 활동하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조국 광복회원 또는 조선 민족 해방 동맹원들을 통하여 이 출판물들을 보급하였는 바 그들은 이것을 심중히 읽고 그 내용을 대중의 각 계층별 대상을 고려하여 그들의 수준에 적합하게 각양한 방법으로 해설 선전하였다.

그리하여 원쑤 일제에게는 이 혁명적



출판물이 총화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로 되였었다.

오늘 우리 당 출판물은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발행된 출판물의 고상한 전통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켰다.

청년들은 항일 투사들이 자기 출판물을 아끼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 당의 출판물을 아끼고 귀중히 하여야 한다. 지난날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수많은 젊은 애국자들이 이 혁명적 출판물을 읽었다 하여, 조국과 인민의 해방의 방도, 맑스—레닌주의 진리를 이 출판물을 통하여 학습하였다 하여 원쑤들은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그러나 당시 애국 청년들은 굴함이 없이 이 혁명적 출판물이 가르치는 길—항일 무장 투쟁의 성스러운 싸움의 길로 나갔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우리 당의 출판물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행복한 사회에 살고 있다.

1930년대 항일 빨찌산들에 의하여 출판된 혁명적 출판물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한 우리의 출판물은 공산주의 교양과 높은 기술 문화 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동지는 《당보나 사회 단체 신문 등 각종 신문을 잘 리용하여 공장 신문, 벽신문 등 선전 수단을 옳게 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이 교시를 명심하고 우리 당 출판물을 아끼고 사랑하며 당적 출판물들에서 열심히 배워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공산주의를 위한 참된 투사가 되여야 한다.



혁명 가요의 높은 사상성과 인민성

◇ 연 장 렬 ◇



일제 식민지 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오로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견결히 싸운 항일 빨찌산의 영웅적 투쟁 과정에서 창조된 혁명 가요들은 그의 고결한 혁명 투쟁 정신을 반영하는 높은 사상성과 인민성으로 빛나고 있다. 혁명 가요는 항일 빨찌산의 승리적 투쟁에 있어서 그의 강유력한 정치 사상적 무기의 하나로 작전 예술의 하나로서 빨찌산 대원들의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일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빨찌산 대원들은 이 노래를 행군의 대오에서는 투쟁과 고무 격려의 노래로, 전승을 축하 하는 경축연에서는 승리의 노래로 불렀으며 혹은 장엄한 의식가(儀式歌)로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는 혁명 투쟁 정신을 높이며 그들의 고상한 리상과 희망을 노래하는 가곡으로도 불리였다.

항일 빨찌산 대원들은 가는 곳 마다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적에 대한 불같은 적개심을 품었으며 원쑤들에 대한 투쟁 결의를 한층 더 굳게 다지였다. 이와 같이 혁명 가요는 영웅적 빨찌산 대원들의 심장의 노래였으며 약동하는 붉은 피의 노래였다.

혁명 가요들은 빨찌산 대원들 속에서는 물론 유격 지구 인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들 속에서 투쟁과 승리의 노래로 불려 지고 사랑 받았다. 인민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일제 폭압을 반대하는 혁명 투쟁에로 나섰으며 조선 인민 혁명군에 대한 깊은 존경과 지지의 감정에 넘쳤다.

높은 사상성과 인민성을 담은 혁명 가요는 수백종에 달하였으며 그 내용도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혁명 가요에는 김 일성 원수의 직접적 지도하에서 항일 빨찌산 대원들에 의하여 집체 창작된 것들이 대부분이 였으며 그외에도 재래의 반일 투사들이 지은 노래들을 개작한 것, 또는 쏘련을 비롯한 해외의 혁명 가요들이 전래하여 불려진 것, 혹은 민요를 개작하여 부른 것 등등이 있다.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가》는 빨찌산들과 광범한 인민들 속에서 사랑 받은 혁명 가요의 하나이다. 이 노래는 김 일성 원수의 직접적 지도하에 창작되였다. 이 노래는 당시 우리 인민들의 당면한 혁명 과업과 전략 전술 등을 과학적으로 천명한 전투적인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의 내용을 알기 쉽고 부르기 쉽게 조목별로 가곡화한 것이다. 이 노래는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에서는

물론 국내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려지면서 혁명을 위하여 궐기한 인민들의 투지를 무한히 고무하였다.

2천만의 조선 동포 총동원하여
반일 혁명 통일 전선 굳게 다지고
왜놈의 야만 통치 어서 때려 부시여
인민 정부 건설함이 제1조로다.

라고 시작하는 이 노래는 시종 일관 전투적인 혁명적 빠포스를 가지고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서 제기된 투쟁 과업들의 사상을 대중 속 깊이 침투시켰다.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가》를 비롯하여 《통일 전선가》, 《민족 해방가》, 《의회 주권가》, 《반일 전가》, 《결사 전가》등 많은 혁명 가요들은 로농 동맹에 기초한 통일 전선을 확대 공고히 하며 이에 기초한 인민 정권을 쟁취할 데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31년 이후 동만 일대를 중심한 지역에서 불린 《민족 해방가》의 일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1. 싸워라 로동자 한데 뭉쳐라
후렴
공산당 령도로 기쁘고 즐겁게 살'길 찾아라
일제와 만주국을 뒤엎어 놓고 인민의 손으로
인민 혁명 정부를 세우자
2, 싸워라 농민들 한데 뭉쳐라
…………………………………
3, 싸워라 전 민족 한데 뭉쳐라
…………………………………

혁명 가요에는 또한 혁명 승리를 위한 백절 불굴의 투지로 충만된 공산주의 투사들의 혁명 정신이 형상되여 있다. 혁명군 부대에서 가장 많이 불리운 노래들인 《조선 인민 혁명군》, 《유격대 행진곡》, 《용진가》, 《제일 로군가》기타 많은 행군가들에서는 조선 인민 혁명군의 맑스—레닌주의적인 투쟁 사상과 혁명적 기개와 용맹성이 훌륭히 표현되였다.

1, 우리들은 조선 인민 혁명군 공산당 령도 받는 붉은 전투원
우리들의 투쟁 강령 정의로우니
강령을 관철시켜 힘껏 싸우자
…………………………

라고 혁명 가요 《조선 인민 혁명군》은 힘차게 노래하였다. 이 노래는 계속하여 무장한 반혁명을 무장한 혁명 세력으로써 쳐부시며 놈들의 주구들을 처단하여 일제의 각종 악법과 식민지 탄압을 분쇄하고 조국과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하여 끝까지 굳세게 싸울 것을 호소하였다. 혁명에 대한 충실성, 백절 불굴의 의지, 용맹성 등은 어떠한 난관과 시련,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식어 질 수가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널리 알려지고 있는 《유격대 행진곡》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동무들아 준비하라 손에다 든 무장
제국주의 침략자를 때려부시고
용진용진 나아가세 용감스럽게
억천 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나가자 판가리 싸움에 나가자 유격전으로
손에다 무장을 튼튼히 잡고 나갈때에
용진 용진 나가세 용감스럽게
억천 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

여기에서는 억천 만번 죽드래도 굴하지 않고 최후 판가리 싸움에로 용감하게 나아가며 또 그렇게 싸워 나갈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전투적인 혁명적 목소리가 쟁쟁히 울려 나오고 있다.

혁명 투쟁은 상상하기 어려운 간난 신고 속에서 진행되였다. 그러나 항일 빨찌산 대원들은 오직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는 백절 불굴의 강의한 투지로써 원쑤 일제와 싸웠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락관주의는 혁명 가요의 가장 귀중한 사상의 하나이다. 일제는 총칼의 탄압과 감옥과 학살과 단두대로써 혁명을 진압하며 혁명가들의 투지를 꺾어 보려고 어리석게도 발악하였다. 그러나 그 어떠한 시련도 그들의 투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시련이 크면 클 수록 혁명을 위하여 더욱 더 튼튼히 단련되였으며 원쑤들의 멸망을 재촉할 투쟁을 강화하였다. 유명한 《한양 감옥가》, 《연길 감옥가》들에서는 원쑤들의 고문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혁명 투사들의 고상한 락관주의 면모를 훌륭히 보여 주었다. 《한양 감옥가》에서는

포악한 원쑤들의 채찍 밑에서
귀중한 우리들의 불굴의 전사
살'점은 어여지고 뼈를 깎이니
원쑤의 모진 감옥 한양 감옥

음산하고 서리 찬 단두대 우에
영웅의 귀한 피가 스미여 들때
강철 같은 굳센 정신 다지여 내니
감옥은 혁명의 불을 부친다

도시와 농촌에서 무리를 지은
헐벗고 굶주린 천백만 군중
소리쳐 일어난다 혁명은 온다
철문을 마슬 때가 멀지 않았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바 원쑤들의 포악이 아무리 심하다 하드라도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감옥도 혁명의 온상이 였다.

정찰 임무를 끝마치고 돌아 오던 도중 일제 주구에게 밀고되여 원쑤놈들에게 갖은 악형을 당하다가 끝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동지의 숭고한 혁명적 적개심에 대하여 노래한 《추도가》를 들어 보자!

………………………
6, 고문이 끝난 뒤에 사형장으로
어정어정 걸어 간다 김 정환 투사
단두대에 올라선 불굴의 투사
얼굴에 희색 띠고 부르짖는다

8, 이 내 몸은 영원히 떠나 가건만
동지들아 락심 말고 투쟁하여라
번번히 웨치는 그의 구호는
우리의 혁명열을 끓게만 한다

11, 피끓는 군중들아 각성하여라
피압박 대중들아 궐기하여라
우리들을 학살하는 낡은 사회를
짓부시고 평등 사회 건설해 가자

죽음 앞에서도 태연히 미소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의 힘찬 웨침 속에는 오직 혁명을 위하여 살며 혁명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진실한 공산주의 투사의 락관주의적 정신이 흘러 넘치고 있지 않는가!

일제의 야만적 무단 통치를 폭로 규탄하며 당시 사회의 계급적 모순을 폭로하면서 반일 사상과 원쑤들에 대한 적개심과 혁명 의식을 고취한 《불평등가》와 《반일 전가》등이 혁명 가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응당한 일이였다. 《반일 전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1, 일제놈의 발'굽 소리는 더욱 요란타
만주 벌판 넓은 천지 횡행하면서
살인 방화 착취 략탈 도살의 만행
수천만의 우리 군중 유린 하노라

6, 일어나라 단결하라 로력 대중아
굳은 결심 변치 말고 살'길을 찾자
붉은 기 아래 백색 공포 뒤엎어 놓고
승리의 개가 높이 만세 부르자

《불평등가》들에서는 선명한 형상적 시어들로써 당시 사회의 불합리성을 적라라하게 폭로하며 계급적 각성을 고취하였다.

현대의 사회를 관찰한다면
만가지 큰 모순이 여기 다 있다
평등 행복 구하려는 시대의 마음
이러한 불평등 그대로 못 참으리라

라고 허두를 떼고서 한절 한절 차례로 당해 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폭로 규탄하였다.

자동차 으릉 드릉 다니는 길은
로동자 농민들이 닦은 길인데
길 닦을 때 놀던 놈들 차 타고 다니니
이내 몸은 길 닦기 통분도 하다

주린 농민 피땀 흘려 벼 농사해도
일생에 된조밥도 차례 못지고
논도 벼도 이름도 모르던 놈들
흰 쌀밥에 살찐 꼴 보기도 싫다

이 노래는 이 모순된 사회를 뚜드려 부시고 자유로운 새 사회를 건설하자는

전투적 호소로 끝을 맺는다.

쏘련을 중심으로 단결하며 국제 혁명 운동과의 튼튼한 련계를 보장하며 특히 조중 인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가 혁명 가요들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였다.

1, 10월 혁명이 왔다 붉은 기념날 왔다
무산 대중의 피 값에 위대한 명절이 왔다
…………………

라고 《10월 혁명가》에서는 노래하였다. 이외에도 《인터나쇼날의 노래》, 《적기가》, 《메데가》, 《쏘련 옹호가》, 《레닌 탄생가》, 《맑스, 레닌 추억》, 《꼼무나 세상》, 《9. 18 사변가》등 국제주의에 대하여 노래한 많은 가요들이 있다.

혁명 가요에는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혁명과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에 막대한 해독을 주는 온갖 파쟁 분자들을 반대하며 또한 간악한 일제 주구 《민생단》을 반대한 노래들이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여기에서는 온갖 파쟁은 반혁명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혁명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부단히 강화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노래들은 혁명의 간악한 원쑤들을 향하여 폭탄처럼 울려 나갔다.

2, 들어라 조선 중국 로력 대중아
파쟁은 다름 아닌 반혁명이다
일제 놈의 충실한 주구 놈들은
조선의 가지각색 파벌들이다

3, 교활한 파쟁 분자 두목 놈들은
민생단 개떼의 우두머리니
일제 놈과 파쟁 분자 민생단은
모두다 다 같은 우리 원쑤다
…………………………

이 투쟁 원칙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밖에 혁명 가요에는 《추억의 고향》, 《망향가》, 《고향 리별가》를 비롯한 유격대원들의 향기 높은 정서 생활을 반영하는 노래들과 《유희곡》, 《무도곡》등 명랑한 군중 오락의 노래들 그리고 《농부가》, 《아리랑》, 《창덕궁 타령》등 민요, 민족 고전 가요들에 새로운 내용을 담은 노래들이 있다. 이런 노래들은 가장 참된 인간들인 혁명 투사들의 애국적 심정과 락천적인 면모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내 고향을 떠난 이후
시베리야 찬 바람 속
창검을 비껴 들고
반일전에 나섰노라
휴식 시간 누웠으면
고향 산천 생각난다
자연 쫓아 솟는 눈물
옷자락을 적신다 (―망향가―)

이 뜨거운 눈물은 곧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 및 견결한 투지와 직접적으로 련결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 혁명 가요에는 《녀자 해방가》를 비롯하여 《아동가》, 《소년 선봉가》, 《소년 군가》, 《삐오넬가》, 《공청가》, 《로동자가》등 남녀 평등에 관한 사상 및 로동자, 농민, 청소년들의 투쟁 사상을 고취하면서 혁명군 부대의 주위에 결속된 대중 단체 아동단들의 노래로 불리운 것들 또는 《벽파정의 노래》 (리 순신 장군을 노래함), 《3월 1일가》 등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적 전통을 노래한 가요들, 기타 여기서 일일히 다 례증하지 못하는 다양한 내용의 많은 노래들이 있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창조된 혁명 가요는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고결하고 영웅적인 투쟁 정신을 잘 보여 주는 맑스―레닌주의 혁명 사상, 붉은 공산주의 사상의 노래였으며 투쟁과 승리의 노래였다.

혁명 가요는 그 형식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풍부하다. 행진가 형식을 비롯하여 10진가 형식, 12시가 형식, 서정

가요 형식, 기타 많은 가요 형태들을 볼 수 있으며 정서적 수단들에서도 비극적인 것, 희극적인 것을 비롯하여 풍부하였다. 그리고 그의 시어들은 평이하고 인민적이며 그러면서도 혁명적 투쟁 정신과 생활의 진리를 반영하는 전투적인 것으로 특징적이다.

이러한 혁명 가요의 형식은 그의 내용과의 긴밀한 통일을 이루면서 고상한 예술성을 한층 더하여 주었고 인민들 속에 쉽게 전파되였을 뿐만 아니라 잘 리해되였으며 그들을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그리하여 혁명 가요는 대중을 혁명 의식으로 교양하고 고무 추동하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이에 대하여 당시에 한 유격대원의 수첩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가요와 항전 가곡…은 모두가 매우 훌륭하게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며 군중의 흥미를 제고시키는 방식이다. 우리는 이런 방식을 많이 채용할 것이니 새로운 내용이 있는 가요를 창조할 것이다》

혁명 가요는 국내에서도 많이 불리였으며 또 이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서 《홍남 좌익》, 《명천 농조 재건가》, 《화전민의 노래》를 비롯한 여러 종의 혁명 가요들이 창조되여 불리우면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조선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 일으켰다.

항일 빨찌산 시기에 창작된 이러한 혁명 가요들은 자기의 사상 예술적 특질로 하여 우리 문학 발전에 중요한 전통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혁명 가요는 이 시기 창작된 다른 문학 예술 작품들과 함께 당해 시기 조선 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온갖 투쟁 과업을 예술적으로 천명하고 그것으로 인민 대중을 교양 하였으며 투쟁에로 호소 궐기 시키므로써 우리 문학의 혁명적 전통을 더 한층 풍부화 하고 발전 시켰다.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대원들에 의하여 불리운 이 혁명 가요는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도 혁명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주는 노래로서 원쑤들을 향한 폭탄의 노래로서 불리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를 승리에로 고무하는 노래로 영원히 불리여 질것이다.

재일 동포들의 귀국은 지연될 수 없다

김 상 민

지난 2월 16일 공화국 내각에서는 일본으로부터 귀국하는 조선 공민들을 영접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일본으로부터 귀국하는 조선 공민들을 받아 들여 그들의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하고 생활을 안착시키며 그 자녀들의 취학을 보장하는 문제 등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 결정은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오늘 공화국 각지 공장, 기업소, 농촌, 학교들에서는 귀국하는 재일 동포들을 받아 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들이 하루 속히 귀국할 날을 고대하고 있다.

황해 제철소 로동자들은 금년에 1천여 세대의 다층 문화 주택을 비롯하여 2천 여 명의 독신자를 맞아 들일 수 있는 5층 합숙과 40학급의 중학교, 2 동의 탁아소, 2천 개의 침대를 가진 의료 시설, 그리고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춘 문화 후생 시설을 증설하고 있는데 이 모든 시설들은 귀국하는 재일 동포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건설 속도를 높이고 있다.

농민들도 귀국하는 재일 동포들에게 언제든지 완비된 문화 주택과 식량, 가구들을 제공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그들의 귀국을 고대하고 있다.

또한 귀국하는 재일 동포 자녀들의 취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신의주 고급 중학교 교장 백 룡운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의주 시내 전체 교육 일'군들과 학생들은 앞으로 신의주 시에 거주하게 될 재일 동포들의 자녀 전원이 취학할 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귀국하는 재일 조선 동포들의 자녀 480 여 명을 취학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듯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은 어느 때라도 귀국하는 재일 동포들을 영접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귀국하는 즉시로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집은 물론 자유로히 일할 수 있는 일터, 그들의 자녀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마련하였다.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일본 당국이 자기의 결정대로 재일 동포들을 공화국에로 하루 속히 돌려 보내는 문제 뿐이다.

그런데 왜 아직도 재일 동포 귀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일본 정부가 이미 표시된 재일 동포들의 귀국 의사를 재 《확인》하며 그들을 《선별》하여야 한다는 부당한 구실 밑에 자기 결정 집행을 고의적으로 태공하고 있는데 있다.

지금에 와서 무슨 《확인》과 《선별》이 필요한가?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 간 재일 동포들은 빈궁과 무권리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더는 참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살'길을 찾아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로 귀국할 것을 희망하였다. 재일 조선 동포들의 귀국 희망은 김 일성 원수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보내 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편지와 조국에 있는 친척, 친우, 또한 각 사회 단체와 각 기관들에 보내 온 수많은 편지들에서 표시되여 있다. 얼마 전에 김 일성 원수에게 보내 온 도꾜 조선 제 2 초급 학교 학생들의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은 일할 자리도 얻지 못하고 살'길을 찾아 헤매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학교에서 필요한 학용품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매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속히 조국에 돌아 가 압록강에도 가 보고 백두산에도 올라 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조국에 가서 기술을 배우며 또 노래와 춤도 배우고 싶습니다. 하루 속히 조국에 있는 동무들을 만나 보고 싶고 그들과 같이 공부하며 체육도 즐기고 싶습니다》 이렇듯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 오려는 재일 동포들의 념원은 절절하다.

해외 공민들의 자기 조국에로의 귀국에 대한 요구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며 이 요구를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실현시키는 것은 국제적 관례로 되고 있다. 해외에 있는 공민들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 가는데 그 무슨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겠는가? 한때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거주하던 일본인 중에서 귀국을 희망한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의사의 《확인》도 없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 갔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자기들의 부당한 처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조선 반도가 량단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일본에 귀국하던 때와는 《객관적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재일 조선 동포들의 경우에는 귀국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당치 않은 구실을 꾸며 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 동포들의 조국이 처한 《객관적 환경》에 대하여 상관할 필요가 어데 있는가? 일본 정부로서는 자기 조국에 돌아 가려는 재일 조선 동포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의 조속한 귀국에 필요한 실무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문제는 재일 동포들을 그의 의사 대로 공화국에 귀국시키는 것 뿐이다.

그러면 왜 일본 정부는 자기 결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일 동포들의 귀국 문제를 끌고 있는가? 그것은 일본 정부가 재일 동포 귀국 문제를 정치적 문제와 결부시키는 데 있다. 최근 미제의 사촉하에 리 승만 도당은 재일 동포들의 공화국에로의 귀국을 반대하는 정치적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오늘 세상 사람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남조선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식민지 략탈 정책으로 인하여 인간 생지옥으로 되고 있다. 바로 리 승만 도당은 재일 동포들의 귀국 문제가 실현되면 제놈들의 반인민적 매국 정책이 온 세계 앞에 드러날 것이 두려워 발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리 승만 도당의 이와 같은 소동 앞에서 그 어떤 《중립성》과 《공정성》을 증명하려는 구실하에 의사 《확인》과 《선별》을 하자는 것은 사실상 리 승만 도당의 허무 맹랑한 중상 비방에 맞장구를 쳐 재일 동포들의 귀국을 방해하자는 것이며 이 문제를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리용하려는 것이다.

조선 청년들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재일 동포들을 받아 들일 온갖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다. 이와 같은 성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뜨거운 동포애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청년들은 재일 동포들이 인도적 원칙에 의하여 조국의 품에 안길 그날 까지 자기의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귀국을 방해하는 그 어떤 책동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기의 부당한 태도를 버리고 실무적 문제 토의를 위한 조일 량국 적십자 대표간의 쌍방 회담을 조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실업과 굶주림에서 허덕이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자기 조국에로의 귀국 문제는 그 어떤 정치적 문제와도 관계 없이 조속히 실현되여야 한다.

정치 강좌

조선 로동당 (4)

조선 로동당원, 입당 절차

조선 로동당원

조선 로동당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광범한 근로 대중의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당이다. 따라서 우리 당은 자기의 당원을 로동자, 농민, 지식인 등 모든 근로자들 속에서 받아 들인다.

그러나 우리 당은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한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인 것 만큼 입당을 청원하는 근로자들을 누구나 가리지 않고 다 당에 받아 들일 수 없다. 왜냐 하면 근로자라고 하여 입당을 청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덮어 놓고 당에 받아 들인다면 당 대렬의 순결성과 조직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근로 대중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놀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 규약에는 《조선 로동당원으로는 조선 공민으로서 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며 당의 일정한 조직 안에서 열성적으로 사업하며 당의 결정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규정된 당비를 바치는 모든 근로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로동당원이 되려면 우선 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한가지 사상과 한가지 목적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근로 대중의 선진 분자들로써 단결된 조직이다. 그런데 우리 당의 이러한 사상과 목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및 당의 조직 원칙 등은 우리 당 강령과 규약에 규정되여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원이 되자면 반드시 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없이는 당원들의 사상 의지의 통일과 행동의 일치를 도저히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입당의 첫째 가는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당 강령에 밝혀져 있는 사상과 목적을 자기의 사상과 목적으로 삼으며 당 규약에 제시되여 있는 당 생활의 규범을 자기 행동의 법칙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한 개 로동당원으로 된다는 것은 벌써 그가 보통 군중과는 달리 하나의 혁명 투사로서, 정치 활동가로서 자기 개인의 리해 관계에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당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대중의 앞장에 서서 헌신적으로 투쟁함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당의 강령과 규약을 말로써는 승인하나 그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투쟁하지 않으며 자기 개인의 리익을 당의 리익 우에 올려 세우는 그러한 자들의 입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로동당원이 되려면 반드시 당의 일정한 조직 안에서 열성적으로 사업하며 당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불패의 전투력은 당이 정연한 조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개 당원들이 당의 일정한 조직 안에서 당의 통제 밑에 생활하며 투쟁하는 데 있다.

당원들이 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려 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당의 일정한 조직 안에서 규률 있는 당 생활을 하지 않고 당 조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서 당 결정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실제에 있어서 당의 사상 행동상 통일은 보장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당은 자기 앞에 나선 어떠한 과업도 성과 있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의 일정한 조직 안에서 열성적으로 사업하며 당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입당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매개 당원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위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일정한 초급 당 단체에 소속되여 당 상급 기관과 해당 초급 당 단체의 결정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당 조직의 통제하에서 규률 있는 당 생활을 하기 싫어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당 결정을 입으로만 받들려는 말공부쟁이들의 입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로동당원이 되려면 반드시 규정된 당비를 바쳐야 한다.

당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는 일정한 자금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당은 동일한 사상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자원적 조직인 것 만큼 당의 활동에 요구되는 자금을 당원들의 공동 부담으로써 해결한다. 때문에 당원은 반드시 자기의 경제적 생활 형편에 따라 규약에 규정된 당비를 바침으로써 당의 활동을 물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당비 납부는 비단 당의 활동을 물질적으로 원조하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당비 수납을 통하여 당 단체와의 련계를 긴밀히 하여 당원들의 당에 대한 물질적 성의를 높이며 당 단체들이 당원들의 당 생활을 더 잘 료해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된다.

이상과 같은 조건들을 갖춘 자들만이 로동당원이라는 고상한 칭호를 지닐 수 있다.

입당 절차

당 규약에는 당원은 규정된 후보 기간을 마친 후보 당원들 가운데서 받아 들이되 그것은 반드시 개별적 절차를 밟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우선 어째서 후보 당원 가운데서 당원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 당과 당원들 앞에 제기된 임무가 더욱 더 중대하여 졌으며 따라서 당원 자격에 대한 우리 당의 요구가 훨씬 높아 졌음을 의미한다. 당원이 되기 전에 우선 일정한 기간 후보 당원으로서 교양 훈련하며 또 실지 사업을 통하여 그를 검열한 후에 정식으로 당원으로 받아 들이게 된다면 당의 질적 구성을 더욱 높이며 당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입당의 개별적 절차

우리 당은 개별적 절차를 밟아 당원을 받아 들인다. 입당의 개별적 절차란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심사하여 집단적으로 당에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한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매개의 입당 청원자들은 매 개인이 한 사람씩 입당 문건을 초급 당 단체에 제출하며 또한 당 단체들에서 입당 문제를 토의 결정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매개 청원자들을 한 사람씩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매개의 입당 청원자들이 어떠한 사회 생활을 거쳐 왔으며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준비되여 있

는가 등 그들의 입당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입당을 개별적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지 않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명단에 의하여 받아 들인다면 우리 당 대렬에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준비되고 단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 와서 당 대렬의 조직성과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가면을 쓴 적대 분자, 암해 분자들에게까지도 당 대렬에 기여 들어 당을 내부로부터 파괴할 길을 열어 주게 된다.

그러면 개별적 절차의 원칙에 의하여 진행되는 입당의 구체적 절차는 어떠한가?

입당 문건. 입당을 청원하는 사람은 누구를 물론하고 다음과 같은 문건들을 구비하여 해당 초급 당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당 청원서, 당원 2 명의 보증서 (각각 1부씩 그러나 민청원이 입당할 때는 시 (구역), 군 민청 위원회의 입당 보증서는 당원 1명의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입당 청원자의 리력서.

입당 청원자가 제출하는 이러한 입당 문건은 모두 영광스러운 로동당원이 될 것을 청원하는 정치적 문건이다. 그러므로 매개 입당 청원자들은 이러한 입당 문건을 정확히 그리고 정성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입당 보증. 다음으로 입당 청원을 접수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되는 입당 청원자들의 입당 보증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입당 보증을 옳게 하는 문제는 당 장성에 있어서와 당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만일 우리 당원들이 입당 청원자들에게 진실하게 입당 보증을 한다면 적대 분자들이나 과거 경력이 불순한 자들이 당을 기만하고 우리 당 대렬에 기여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입당 보증이 이처럼 중요한 것 만큼 당원이라 하여 누구나 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나 입당 보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 규약에는 입당 보증을 할 수 있는 당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일정한 당 년한 즉 1년 이상의 당 생활을 한 당원이라야 하며 또 입당 보증인은 자기가 보증하는 입당 청원자의 사회 생활 관계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당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그리고 보증인이 자기와 같은 직장 혹은 같은 리에 살지 않는 입당 청원자에 대하여 입당을 보증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당 년한, 당증 호수 및 수표를 자기가 속하여 있는 시 (구역), 군 당 위원회 위원장이 확인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입당 청원자가 민청원일 경우에는 그가 속한 시 (구역), 군 민청 위원회의 보증으로 당원 1명의 보증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은 청년들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로 교양 육성하는 사업을 감당하고 있는 시 (구역), 군 민청 위원회는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민청원들의 입당 문제에 대하여 당원에 못지 않는 믿음직한 보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입당을 청원하는 모든 민청원이 반드시 다 시 (구역), 군 민청 위원회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청원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당원 2 명의 입당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입당의 결정과 그의 비준, 당 규약에는 《입당은 초급 당 단체 총회에서 입당 청원자의·참가 밑에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은 시 (구역). 군 당 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급 당 단체에서 입당을 청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입당 문건을 접수하게 되면 그의 집행 위원회 (당원 15 명 미만되는 초급 당 단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는 그것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당 청원자나 혹은 입당 보증인과 담화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갖춘 다음에 초급 당 단체 총회에 제기한다.

초급 당 단체 총회에서 입당 문제를 토의할 때에는 입당 청원자의 참가하에 집행 위원회가 그에 대한 보고를 하고 질문 및 토론을 충분히 전개한 다음에 거수 결정한다. 그리하여 입당시키기로 결정된 문건은 회의록과 함께 제정된 기일 내에 시 (구역), 군 당 위원회 (당 위원회가 있는 초급 당 단체는 당 위원회를 거쳐서) 에 제출한다.

만약 어떤 입당 청원자의 입당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입당 청원자에게 친절히 설복해 주는 동시에 그로 하여금 락심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입당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도와 준다.

시 (구역), 군 당 위원회 또는 그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당 위원회는 입당에 대한 초급 당 단체의 결정을 접수하면 제정된 기일 내에 집행 위원회를 열고 토의하여 초급 당 단위의 결정을 비준하거나 혹은 부결한다. 이와 같이 초급 당 단체에서 결정된 입당 문제는 시 (구역), 군 당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입당 년월일은 초급 당 단체 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로 한다.

로동당원이 되는 것은 민청원의 최고 영예

민청은 우리 당의 후비대이다. 민청은 청년들에 대한 교양을 잘하여 우수한 선진 근로 청년들로써 당 대렬을 부단히 보충 강화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원의 후보자는 민청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청을 조선 로동당의 후비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청은 당원의 후비를 양성하는 학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혁명 승리의 조직자이며 령도자인 조선 로동당의 당원으로 되는 것은 민청원의 최고 영예이다. 그러면 민청원들은 조선 로동당의 당원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민청원은 우선 당의 후비대인 민청원의 영예를 견지하고 민청 조직 생활을 충실히 하며 민청 규약상 의무를 성실히 실행하는 데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민청원은 민청 회의 특히 초급 민청 단체 총회에 빠짐 없이 참가하여 문제 토의에서 창발적 의견을 내놓으며 옳은 결정이 채택되도록 노력하며 또한 민청에서 결정되고 위임된 사업을 제때에 정확하게 실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민청원들은 당에 입당하기 위한 사상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청원들은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자기의 공산주의적 맑스—레닌주의 리론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학습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정치 사상적으로 튼튼히 보위하는 것이다. 민청원들은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방해하는 일체 반당 종파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종파의 온상으로 되는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고 동지들과의 원칙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청원들은 맑스—레닌주의 학습과 공산주의 교양에 부단히 힘써야 한다. 또한 우리 당 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그를 지지 옹호하며 자기 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그를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민청원들은 우리 당의 혁명 전통과 투쟁 력사를 깊이 학습하며 강령 규약의 내용을 심오하게 리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민청원들은 우리 혁명 승리의 결정적 담보로 되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기의 계획을 량, 질적으로 완수하며 항상 어렵고 긴요한 부문의 앞장에 나서고 선진 기술을 부단히 습득하여 로력적 위훈을 세우는 선진 돌격대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오직 이와 같이 사상 정치 생활에서 로동과 학습에서 모범적인 민청원들만이 조선 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닐 수 있다.

오체르크

공산주의적 맹세

오 익 근

큰 폭발을 앞둔 순간이여서 나는 얼굴이 갸름하고 몸'집이 호리호리한 젊은이가 시키는 대로 겨우내 말라 들었던 잔풀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산비탈 골짜기에 엎드렸다. 나의 두리에 있던 젊은이들도 모두 그가 지시하는 대로 재빨리 이 골짜기에 모여와 제가끔 알마춤한 자리를 잡았다.

대철도를 놓는 공사장 치고는 기이하리만큼 사위는 조용했다. 다만 어디선가 멀리서 웅글지게 뽑는 젊은 철도 건설자들의 노래 소리가 들릴 뿐이였다.

…………

우리는 6백리 철도 건설 돌격대
로동당 기'발 따라 앞으로 앞으로
태산을 가르며 절벽을 까부시며 나간다.

…………

아마 낮이 아니고 모름지기 이런 노래 소리가 들려 오지 않았던들 숨 죽인 젊은이들의 빛나는 눈'동자들이 폭발 지점의 동정만을 살피고 있는 이 순간은 필경 전시에 흔히 있었던 그 어느날 밤의 야간 습격 전투를 련상시켰을 것이다.

이따금씩 서벅서벅 풀 우를 걷는 발'자국 소리만이 들렸는데 그것은 아까 나와 나의 근처에 지금 엎드려 있는 젊은이들에게 대피를 지시하던 갸름한 얼굴에 몸'집이 호리호리한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피 정형을 살피느라고 돌아 보는 때문이 였다.

이런 일을 끝낸 후 그는 맨 나중에야 대피하였는데 그의 자리는 바로 내 옆에 정해 졌다.

《여기서면 위험하지도 않고 폭발되는 순간을 잘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호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보았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정각 두 시에 폭발스위치를 넣는데 이제 한 시 좀 넘었을 뿐이군요》 하고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나도 그를 따라 담배를 부치면서 그와 이런 말 저런 말을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그가 삼등—세포, 지하리—평산 간의 600리 철도 건설이 시작되자 이 공사장에 달려 온 벽성군 도현리 민청 위원장 김 춘구 동무이며 건설 공사장에 와서는 공사의 어려운 고비마다에서 용감히 싸우는 조 옥희 영웅 돌격대 대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방금 폭발을 앞둔 공사만 해도 평산서 지하리로 벋어 나가는 철도 공사중 10 키로메터 지점에 있는 돌바위를 까내는 가장 어려운 공사의 하나였는데 김 춘구며 그와 함께 공사장으로 온 벽성군 출신의 젊은이들이 자진해서 맡아 나선 작업이 였다. 이 공사에서는 바위 만해도 1만 8천 립방 메터를 까내야 했는데 이것을 늦어도 2월 말까지 끝내지 못하면 다른 공사가 다 되였다 해도 평산서 떠난 기차는 례성강 반의 이 지점에서 멎어 서야만 하였다. 이만큼 중요한 공사장에서 김 춘구가 속해 있는 제 2 대대 제 3 중대에서는 이 공사에 50여 명의 로력을 돌리기로 작정하면서도 공사를 과연 예정 기일내에 끝낼 수 있을가 하는 데 대해서는 자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대대와 중대 지휘부에서는 적지 않게 골치를 앓고 있었다.

김 춘구 동무는 이 때 평지 구간의 로반을 닦는 성토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일은 겨울에 꽁꽁 언 땅을 까내는 만치 헐한 일이 아니였으나 방금 중대 앞에 나선 난공사와 또는 다른 중대 건설자들이 맡아 하는 《10만산》 성로 작업이며 례성강 철교 건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였다.

《그 때에—하고 김 춘구는 말을 이었다—나는 생각하였지요. 물론 일을 헐하게 하자면 생각할 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량심에 가책되고 더우기는 여기로 올 때 당 위원장과 민청 위원장 동무가 하던 말과 아버지가 하던 말이 되살아 나더군요.》

김 춘구는 이렇게 말하고 생각에 잠겼는데 아마 그는 출발 당시를 회상하는 모양이 였다.

김 춘구며 그 밖에 철도 건설에 지원하여 나선 청년들 앞에서 군 당 위원장은

《동무들이 참가하는 철도 공사는 실로 방대한 공사요. 왜놈들은 평원선을 14년이 걸려서 놓았소. 삼등—세포, 지하리—평산간의 철도 건설 규모는 바로 평원선의 규모와 같소, 그런데 그것을 공산주의적 발기자들인 젊은이들은 불과 한해 반 동안에 놓게 될 것이요, 동무들은 이 공사에 우리 군 청년들을 대표해서 참가하는 천리마의 젊은 기수들이요. 동무들이 그 철도를 개통시키는 날이면 그 길로는

강원도 일대의 무진장한 목재며 곡산, 수안, 홀동 등지의 지하 자원이 실려 나올 것이고 농촌의 기계화, 전기화, 수리화를 위한 기계, 모타, 발전기들이 실려 들어갈 것이요. 이렇게 공사의 의의는 크오.》

김 춘구의 아버지도 《사내란 일단 속다짐한 일은 끝까지 해야 하느니라. 어려운 일이라고 뒤'걸음질 말아라. 호랑이를 피하는 명포수를 못보았다. 하물며 삼등—세포, 지하리—평산에 철도를 놓는다는건 정말 꿈같은 일이다. 옛날에는 꿈이던 것을 너희들이 이제 손수 놓게 된다》하며 아들을 격려하여 주었다.

이런 말은 김 춘구를 더 참을 수 없게 하였다.

《나는 함께 온 봉 한종, 정 영택, 박 명국 동무들과 의논하였지요, 우리들이 방금 중대 앞에 나선 공사를 담당하여 해 낼 수 있을 가구요, 그랬더니 진작부터 이번 공사를 통해서 진정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서의 영예를 고수하겠다고 맹세한 봉 한종 동무라든가 협동조합의 대장'간에서 마치를 휘두르던 이 솜씨론 철도 건설 공사도 문제 없다고 뽐내던 영택이며 관개 공사에서 내던 솜씨를 보여야 하겠다고 벼르던 명국 동무들이 절대 지지하여 주더군요.》

이 동무들의 말에서까지 힘을 얻은 김 춘구 동무는 드디여 중대부에 가서 그 난공사를 자기 분대의 26명 성원에게 맡겨 달라고 하였다.

《중대장 동무 우리 분대에게 그 일을 맡겨 주시요. 그 공사를 맡는 날부터 나는 우리 분대를 조 옥희 영웅 돌격대라고 부르고 그 영예를 고수하겠습니다.》

김 춘구의 불타는 말을 듣고 있는 중대장 최 윤수는 이 공사장에 오기 전까지 원평리 민청 위원장으로 있었는지라 바로 옆 동리인 도현리 민청 위원장이던 그의 일 솜씨를 잘 알고 있는 터여서 자못 기뻤다. 그 보다도 더 최 윤수를 기쁘게 한 것은 도현리 지남산에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다가 원쑤들에게 희생된 조 옥희 영웅의 이름을 가진 돌격대를 조직하겠다는 그의 맹세였다. 그러나 50여 명으로도 힘들 일을 그 절반 로력으로 같은 기간에 하자는 데는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만 하였다.

《헌데 어떻게 할 차부요?》

《혼자 날르고 둘은 싣는 3인 3따찌까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 400 따찌까를 운반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32 립방의 성토를 하게 되지요.》

《그 인원은 얼마를 보았소?》

《아홉으로 보고 따찌까는 10대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가래 사용을 예견했는데 열 둘이서 가래 넷을 움직이면 하루 116 립방 메터의 절토, 성토는 가능합니다.》

《폭발은 얼마나 보았소?》

《암반의 50%를 보았습니다.》

《자신 있소?》

《맡겨만 주십시요.》

《좋소, 영웅의 이름을 빛내이시요.》

조 옥희 영웅의 이름을 가진 김 춘구를 대장으로 한 돌격대는 이렇게 생겨 났으며 이들은 지하리—평산간 철도 공사장의 난공사의 하나를 맡게 되였다.

그것은 2월 초순이였다. 여느해 보다 추위는 일찌기 물러 가고 례성강 물도 풀린 때였다. 그러나 아직 날씨는 맵짰다. 이러한 외부적 조건을 물리치면서 바위를 까내는 일이란 상상하기만 해도 힘든 일이다. 더우기 이 작업은 아무렇게나 바위를 까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 작업으로 바위를 절반 이상 날려 버릴 것을 고려하여 장약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만 했다.

이처럼 조 옥희 영웅 돌격대원들은 처음부터 어려운 난관에 부닥쳤다.

바위에 정을 대고 치면 새'하얀 불꽃만이 반짝할 뿐 바위에는 어디에 정을 대였던지 자리도 알리지 않았다.

관개 공사에 동원되여 이미 이러한 작업에는 경험이 있다던 박 명국 동무도 《강철 보다 더 굳은 걸…》 하고는 더 말을 못하였다. 게다가 정은 오래 쓰지 않아 이어 끝이 무디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무딘 정을 가지고 15 리 길을 걸어 대대부까지 가야만 했다.

(과연 자신이 있는가? 내가 공명에 날뛴거나 아닌가?! 만일 기한을 어기면…) 김 춘구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동무들은 천리마의 젊은 기수들이요》 하던 당 위원장의 말과 《어렵다고 물러서지 말아라… 호랑이를 피하는 명포수를 보지 못했다》 하던 아버지의 말이 귀'전을 울리며 그를 채근하였다.

일을 시작한 닷새째 되는 날 저녁이 였다. 이 날까지 돌격대가 조직된 후 이렇다 할 일을 하지 못한 26명의 성원들은 일'손이 끝난 후 이 바위 앞에 우등'불을 피워 놓고 모여 앉았

다. 우등'불이 타오르자 화광이 비치인 례성강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김 춘구는 문득 기차가 개통하는 날 이 아름다운 강안의 아름다운 화폭을 차창으로 내다 보며 건너 가는 그날을 그려 보았다. 생각하면 할 수록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춘구에게는 한날 꿈에 지나지 않았다. 일시적 후퇴 시기에 락동강반까지 나갔다가 이 길로 해서 신계, 곡산에 빠져 들던 때도 그는 《아, 여기에 철도만 있으면 이렇게 고생은 없으련만…》 하고 꿈을 꾸었다. 그 꿈이 오늘은 실현되고 그 개척자의 대렬에 선 자기를 그려보니 용기는 다시금 되살아 났다.

춘구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우등'불 속에 비치인 한종이며 영택이며 명국이며 그 밖의 대원들의 얼굴을 한바퀴 훑어 보았다. 화광에 불그레해진 근육이 삐여난 빰이며 재'별처럼 반짝이는 빛나는 눈'동자들이 얼마나 믿음직한 동무들이냐! 이들의 지혜를 모으면 바위가 아니라 바다도 막을 수 있을 것만 같은 힘을 춘구는 느꼈다.

《동무들, 오늘까지의 우리 일은 잘 못 되였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맹세한 기일 보장은 어림도 없소.》

춘구는 이렇게 말하고 동무들을 둘러 보았다. 그러나 한종이며 영택이며 명국이들은 그의 말을 듣는다기 보다 화광에 훤히 드러나 보이는 바위를, 정확히 말하면 요 며칠새 정을 대고 뚫어 보던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하고 춘구는 말을 이었다—나는 반성하오만 좀 해이됐었소. 솔직히 말하면 곤난 앞에 굴했더란 말이오… 헌데 나 보기에는 이것이 나만이 아닌 것 같소?!》

《그렇소!》

하고 봉 한종 동무가 수긍하였다.

《자아 보우 그러니 일이 잘 되겠소. 이만한 난관 앞에서 굴해가지고야… 김 일성 수상님이 직접 지도하신 항일 빨찌산들은 이보다 몇 백배도 어려운 난관도 참고 뚫고 나갔소, 왜적을 물리치던 그 하나 하나의 전투를 회상해 보우. 아니 보천보 전투 하나만 놓고 보기오,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 였소, 그러나 수상님께서는 국경 지대의 왜놈 수비군을 뚫고 조선 인민은 살아 있다는 영광의 홰'불을 올렸소.》

춘구는 일단 말을 끊고 동무들을 쳐다 보았다. 훤한 화광 속에서도 돌격대원들이 새로운 결심을 다지며 긴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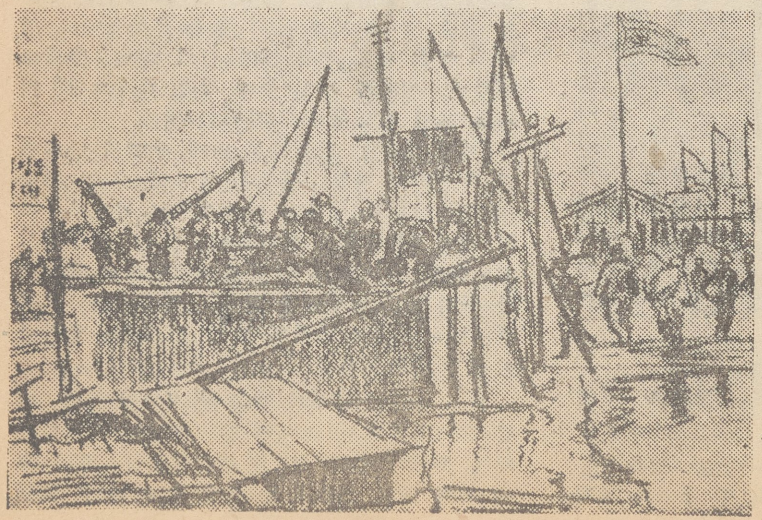
《오늘 우리는—하고 춘구는 다시 말을 이었다.—바로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전통을 이은 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가 아니요! 그런 우리가 이만한 난관 앞에서 굴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요.》

모두 아무 말도 없었다. 타 오르는 나무 우에서 삥삥하는 물'방울 소리가 들릴 뿐이였다.

《옳소, 좀 더 열성을 내고 우리의 지혜를 모으면 능히 할 수 있소.》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답게 힘든 작업에서 자기를 단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노상 힘든 일의 앞장을 서던 봉 한종이가 침묵을 깨뜨렸다. 그리자 피여 오르는 우등'불처럼 돌격대원들의 화제는 쏟아져 나왔다.

《정 벼르러 15 리 길을 왕복하느니 예다 대장'간을 만들기요, 본시 나는 대장쟁이여서… 모루는 레루 토막으로 하고 숯은 나무를 쓰면 될걸 가지구.》



《그건 정말 그럴듯 한데… 대장'간 차리는 건 내가 돕겠소.》

봉 한종이가 말하였다.

《난 두꺼비식 발파를 하자는 걸 제기하오.》

《건 어떻게 하는거요.》

하고 춘구가 묻자 리 종한이란 민청원이 대답하였다.

《별건 아니지만… 한 70 쎈치메터쯤 뚫어서 한 사람이 겨우 앉을 만큼 만든 다음 소발파를 하자는 거지요.》

정 영택은 갱도에 널판을 깔고 발구를 만들어 운반한다면 굴 속에서 싣는 사람과 밖에서 발구를 끄는 사람만이면 헐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돌격대원들은 모두가 혁명 투사들의 혁명 정신을 배워 힘차게 싸워 나가며 어려운 공사에서 자신을 검열함으로써 영예로운 당원이 될 것을 다시금 결의하였다.

이튿날부터 공사장은 활기로 가득찼다. 정 영택과 봉 한종은 끝내 대장'간을 차려 놓고 무딘 정이며 기타 공구를 쉬는 시간에 벼려 주었다. 정 영택이가 만든 발구는 보기 드문 적재차로 대신되였다.

두꺼비식 발파를 도입하여 돌격대원들의 작업 능률은 20배나 올라 갔다.

그러나 일이란 것은 한 모퉁이가 풀리면 또 의례히 새로운 난관이 앞을 막는 법이다. 발파를 할 굴을 거의 뚫었다고 생각되는 마지막 시기에 이르러 굴 속에는 산소가 희박하여졌다. 이것은 실로 대대부에서도 예견 못했던 일이다. 이바람에 공사장에서는 일이 멎었다. 대대 지휘부가 중대에 련락해 온 소식은 산소를 보충할 기계를 보낼 테니 며칠만을 참으라는 것이 였다.

돌격대원들은 또다시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민청 단체 회의에서 제기된 난관을 뚫고 나갈 방도를 찾기 위해서 였다.

《대대부와 중대부에서 우리를 념려하는건 절대로 옳은 일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기한은 보장 못되오.》 봉 한종은 이렇게 허두를 끊고 생각하듯이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돌격대원들이요. 바로 어제 트레스트 지도부가 비준한 바와 같이 조 옥희 영웅 돌격대란 말이요. 돌격대에 참가할 적부터 우리는 조 옥희 영웅처럼 곤난을 참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을 맹세했소.》

《옳소, 우리끼리 방도를 찾고 참아 가기오.》 떠들석한 대원들의 말은 이러하였다.

《동무들 소나무에는 산소가 많소. 소나무 잎을 물고 굴 속에서 일합시다. 그러면 능히 산소가 보충될 것이오.》

조 옥희 돌격대원들은 소나무 잎사귀를 물고 굴 속으로 들어 갔다. 사실 이것은 굴 속의 희박한 산소를 보충하여 주었다.

조 옥희 영웅 돌격대원들은 이렇게 하여 드디여 14 톤의 화약을 동시에 장약하여 하나의 돌바위를 허물 수 있게 하였다.

김 춘구가 지나온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이에 시간은 이미 발파하는 순간에 다가왔다.

《저기를 잘 보십시오, 잘 못하면 좋은 구경을 놓쳐 버릴 터이니…》 하고 김 춘구 동무는 폭발될 장소를 가리켰다.

그가 가리키는 저기에는 례성강 기슭에 우뚝 삐여 나온 육중한 바위가 선로를 가로 막고 있다.

《1분 전입니다.》 김 춘구의 말도 끝나기 전에 화산이 폭발하기라도 하는듯이 시꺼먼 먼지가 공중에 솟아 오르는 순간 요란한 폭음이 메아리치고 지축이 뒤흔들렸다. 불과 몇 초라고 기억되는 사이에 이러한 현상은 몇 차례 반복되였다.

산에는 붉은 신호기가 올랐다.

《만세! 만세!》 나의 주위에 엎드렸던 돌격대원들이 일시에 일어나 폭발된 그 장소로 달려 갔다.

나도 김 춘구 동무를 따라 달려 갔다.

그렇게도 이 젊은이들의 애를 태우던 바위는 허공으로 날아가고 그 사이는 훤히 티였다. 이 바위의 암석이 례성강에 처박히는 통에 어른의 허리를 치던 례성강 물도 정갱이를 칠 정도로 밑바닥이 돌로 찼다.

조 옥희 영웅 돌격대원들이 다진 공산주의적 첫 맹세는 이렇게 열매를 맺았다.

이 때로부터 며칠이 지나 다시 이 공사장에 갔을 때 나는 조 옥희 영웅 돌격대의 김 춘구 대장이며 봉 한종, 정 영택, 박 명국 동무들을 《10만산》에서 만났다. 당 중앙 위원회 2월 전원 회의 축하 편지에 무한히 고무되여 그의 두터운 신임에 보답코저 이 《10만산》의 성토 작업에 또다시 지원해 나온 것이다.

—1959. 3. 27—

질 제고의 결정적 고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 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가 량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충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들은 질이 더욱 높은 제품을 요구하게 되였다. 이 요구는 인민들의 생활 도구인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지난 시기 우리 공장에서 만든 도자기 제품은 질이 좋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민들로 부터 적지않은 신소를 받았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신소를 받을 때마다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청년들의 투쟁을 구체적으로 조직하지 않고 질을 높이자고 회의에서 강조만 하고 있었다.

당 중앙 위원회 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우리는 비로소 자기의 지난날의 사업을 심각하게 검토하게 되였다. 2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투쟁에 들어 서면서 공장 민청 위원회는 제품의 질을 높이지 못하는 기본 원인이 바로 제품을 만드는 청년들의 사상 관점상 결함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였다. 즉 일부 청년들 속에는 제품이야 어떻게 되든 개인의 《수입》과 《명예》만을 생각하는 개인 리기주의 사상이 있었던 것이다.

민청원 유 원호 동무는 6급공이다. 그는 매일 자기 책임량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200%에 달하는 높은 성과를 올리는 일이 드물지 않게 있다. 그런데 생산 성과와 함께 오작품의 비률도 높은 수'자에 달하는 데 매일 평균 20%를 초과하고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불합격품이 생긴다 해도 덮어놓고 많이만 생산하면 작업 책임량을 초과할 수 있고 또 임금도 많이 받는다는 것이였다. 이런 사상은 유 원호 동무 뿐만 아니라 우리 공장의 적지않은 청년들의 머리에서 작용하였고 심지어 어떤 동무들은 제품을 많이 만드니 좋지 않느냐? 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로동에 대한 이러한 낡은 태도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제품의 질을 제고할 수 없다는 당의 교시를 깨달았다. 그리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년들 속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우선 교양망과 선동망을 통하여 《공업 제품의 질을 제고할 데 대한 당의 절박한 요구을 철저히 관철시키자.》,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은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이며 전체 인민을 위한 것이다.》, 《불합격품을 생산하는 것은 당과 인민 앞에 범하는 수치스러운 죄악이다.》 등의 제목을 가지고 민청 단체 별로 해설 담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교양의 기초 우에서 브리가다 별로 그날 작업의 총화를 지으면서 《오작품이 생산되는 원인이 어데 있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이것은 아주 효과적이 였다. 토론 과정에서 많은 동무들과 함께 유 원호 동무도 자기의 개인 리기주의적 사상을 비판하고 오작품을 현저히 퇴치하였다. 토의 사업 과정에서 렴 경화 동무의 브리가다에서는 접시의 옆금과 복판 금의 원인을 찾아내여 오작품 비률을 0.5%까지 저하시켰고 자기들의 계획을 120%로 넘쳐 실행하고 있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이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다른 하나의 사상적 편향을 극복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것은 일부 청년들 가운데서 표현되는 도자기 제품에서 오작품 생산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는 보수주의적 견해였다.

실례로 승 호순 동무는 5급공인데 20%내지 25%의 오작품을 계속 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작품 퇴치를 위하여 노력할 대신에 도자기 제품에서 오작품이란 불가피한 것이며 만약 오작품 비률이 저하되였다면 그것은 검사원이 검사를 잘 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까지 말하면서 오작품을 낸 것을 합리화하였다. 현실은 이 동무의 견해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론박하고 있다.

성형공 우 선자 동무는 우리 공장에 온지 3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오작품을 1.5%까지 저하시켰으며 자기 계획을 110%로 초과 완수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토론을 하였는데 일치하게 승 호순 동무가 오작품을 낸 진정한 원인이 그가 자기의 경험만을 믿고 작업 질서와 규률을 지키지 않는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이런 보수주의적 경향을 청산하기 위하여 성형 직장 민청 단체에서 《우 선자 동무의 작업 방법을 배우자》는 제목으로 총회를 가지였다. 회의에서는 많은 동무들이 승 호순 동무의 보수주의적 견해에 대하여 비판하였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사상만 가진다면 누구든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편 공장 민청 위원회는 민청원인 검사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오작품을 전람회 형식으로 전시하고 설명하여 주는 일도 진행하여 오작품 비률을 현저히 퇴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재와 로력도 절약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 공장 실정을 볼때 생산의 파동성이 질 제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지난 1월 실적을 볼때 성형 직장에서는 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계획을 80% 밖에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런 한 결과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량적 생산에만 치중하다 보니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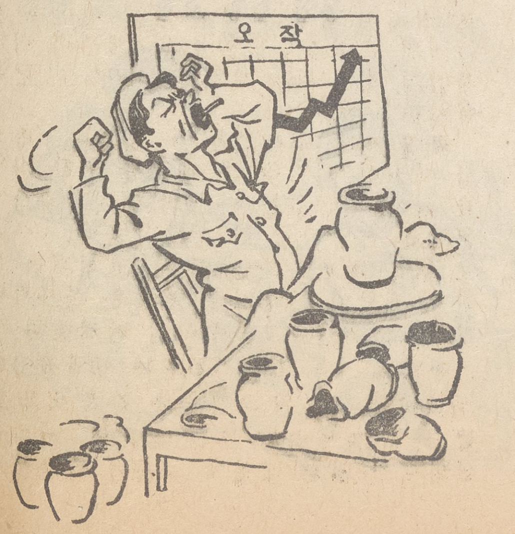
생산에서 파동성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갑자 분쇄기가 공장에 한대 밖에 없기 때문에 갑자 원료가 부족하여 성형 직장에서 만든 반제품들을 제때에 입갑시킬 수 없는데 있었다. 때문에 갑자 분쇄기를 더 증설하여야 하였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앙양된 청년들의 로력적 열의를 포착하고 공무 직장 청년들과 갑자 분쇄기 제작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였다. 여기에서 많은 창발적 의견이 제기되였는데 그들은 유휴 자재를 수집하여 불과 일주일 동안에 만들 것을 결의하고 공무 직장 청년들이 동원되여 시간외 로동으로 열 시간 동안에 갑자 분쇄기를 만들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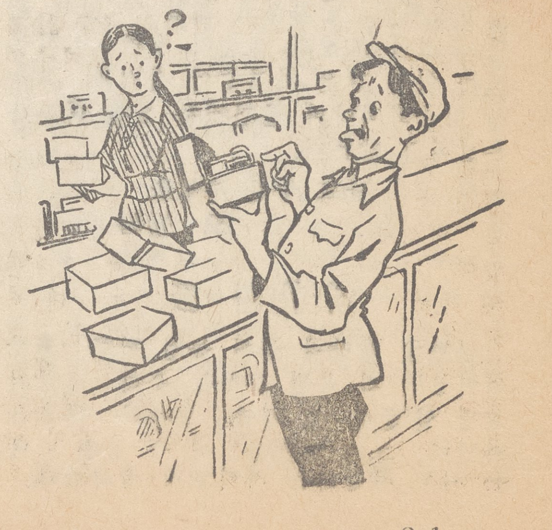
여기에서 경험을 얻은 우리 공장 전체 청년들은 갑자 분쇄기 3대, 소성로 10개를 더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그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공장에서는 1월과 2월에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불합격품이 축감되고 1등품 생산량이 근 10배나 증가되였다.

우리는 이미 얻은 고귀한 경험을 종합하여 청년들 속에서 사상 교양 사업과 기술 교양 사업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우리 당 중앙 위원회 2월 전원 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시켜 도자기 제품의 질을 선진 국가의 수준에 까지 제고시키겠다.

평양 도자기 공장 민청 위원장

심 재복





자본주의 사상 잔재에

불견실한 생활 태도

생활비를 받아든 강 창렬 동무는 늘 밀려 다니는 제 또래들과 함께 식당으로 발'걸을 돌렸다.

《배'사람들이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맛이 없고서야 어떻게 허구한 날을 바다에서 지낸단 말인가!》

남포 수산 사업소 어로공인 그는 늘 이런 말을 입버릇 처럼 되뇌인다.

네모 난 식탁 우에는 잔치상을 련상케 하는 《진수 성찬》이 운반되였다. 돈이 생긴 김에 한번 본'때 있게 먹어 보자는 것이였다. 이렇게 먹고난 그는 밤늦게야 집에 돌아 와서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늙은 홀어머니에게 얼마 남지 않은 월급 봉투를 내동댕이 치면서 주정을 부리기가 일수였다.

이렇게 망탕 털어 먹고 나니 며칠 뒤면 생활비가 떨어지게 마련이 였고 나중에는 귀중한 국가 재산에 까지 손을 대게 되였다.

생활에서 문화성을 높일 수 있는 온갖 조건이 보장된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 고유한 비문화적이며 불건전한 생활 태도가 용납되지 않는다.

남포 수산 사업소
오 광식

허황한 꿈

안변군 배양리 옥천 농업 협동 조합원이였던 김 복필 동무는 우리 조합의 모범 일'군인 김 재욱 동무와 약혼을 하였다. 그래 한동안 이 두 청춘 남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서 지내왔다.

그러나 결혼하기 보름 전에 뜻밖의 일이 생기였다. 처녀인 복필 동무가 파혼을 제기해 나선 것이다. 처음 우리는 필경 재욱 동무에게 무슨 까닭이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았다. 파혼을 제기한 처녀가 바로 허황한 꿈을 꾸고 있은 것이 였다.

김 복필 동무가 제기한 《파혼 조건》은 이러했다. 원산 같은 도시에 사는 사무원에게 시집을 가면 집에 들어 앉아 있어도 배급을 탈 수 있고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왜 농촌에서 《고생》을 사서 하겠느냐는 것이였다.

동무들! 이것이 일은 하기 싫으면서도 남의 등에 업혀 호화롭게 살아 보자는 착취자의 사상과 무엇이 다른가?

오늘의 농촌은 지난 날의 농촌이 아니라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되고 있으며 또한 사랑은 사람의 직업에 의하여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필 동무! 하루 속히 허황한 꿈에서 깨여나 당당한 사회주의 건설자로서 우리와 함께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내닫자!

강원도 안변군 륙하리
농업 협동 조합 김 춘회



포화를 퍼부으라!

《최고 로력 점수》

우리 조합 작업 반장인 리 정묵 동무는 지난해 분배 때 《최고 로력 점수》를 벌었다. 물론 반장인 그가 성실하게 일하여서 높은 점수를 벌었다면 별 문제이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한번은 조합원인 한 아주머니에게 품을 바꾸어 줄 터이니 양복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그를 조합 일에서 떼여냈다. 이래 놓고도 자기는 그날 일을 변변히 하지도 않고서는 그 녀자에게 높은 로력 점수를 주었다. 그리고는 자기는 자기 대로 또 높은 로력 점수를 메겨 놓고 례사로운 일로 넘겨 버렸다.

그의 몰염치한 개인 리기적 행위는 이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제집 일로 자기 처를 일에서 떼내여 외출을 시켜 놓고도 저녁 때가 되면 의례히 관리 위원회에 자기 처도 일에 참가하였을 뿐더러 높은 로력 점수를 벌었다고 허위 보고를 하기가 일수였고 또한 자기에게 술'잔이나 사는 사람에겐 점수도 많이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점수는 박하게 주었다.

그러니 어찌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농업 협동 조합의 작업 반장이란 직책은 결코 벼슬'자리가 아니다.

강원도 세포군 후령리
원정 농업 협동 조합
리 원섭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가?

어느날 내가 일하고 있는 직물 매대에 젊은 부부 한쌍이 찾아 왔다. 이들은 연분홍색 무늬가 쭉쭉 간 잠옷 천에 시선이 멎자 좀 보여 달라는 것이 였다.

그래 나는 선뜻 내보여 주었다. 그랬더니만 천을 펼쳐 보던 이들은 그만 두말 없이 돌아 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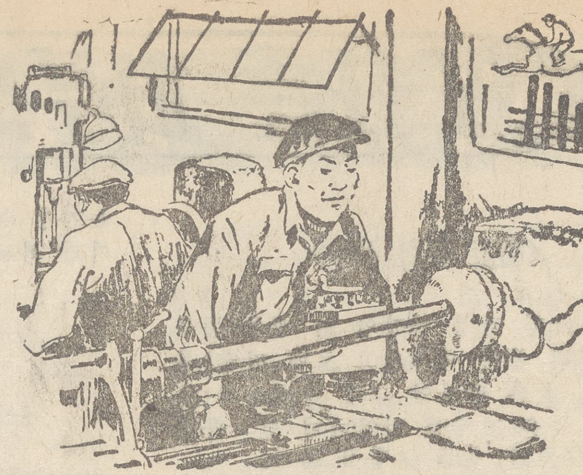
왜 이렇게 되였는가? 그것은 묻지 않아도 자명한 일이다. 천의 질도 좋지 않은 데다 어떻게 염색을 했는지 같은 폭인데도 무늬 모양이 같지 않다. 그래 아무리 고심을 해서 옷을 말라 해 입는다 해도 짝짝이 밖에는 만들 수 없는 천이다. 그러니 옷 천은 《영구 보관용》으로나 짜낸 천인 셈이다.

그래 우리는 손님들의 신소를 접수하고 이 천을 직접 짜내는 평양 견방직 공장의 젊은 직포공들을 찾아 가서 이런 사연을 전했다. 그랬더니만 이들은 손님들의 정당한 신소를 허심하게 접수하지 않았다. 이것이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요자들의 립장에서 일하는 사회주의적 근로자의 태도란 말인가? 결코 그럴 수는 없다. 막상 그 천이 자신들이 입을 천이라면 될수록 고운 무늬로 짜냈을 것이 아닌가?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당의 교시 대로 이런 낡은 사상 관점을 뜯어 고치고 인민에게 복무하는 관점을 확립하여야 한다.

평양 백화점 판매원
리 정숙

조선 예술 영화

《정각 9시》



근삼이는 선반기 앞에서 열심히 부속품을 깎고 있다. 일에 열중하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생활에 대한 행복과 원대한 희망이 넘쳐 흐르고 있다. 며칠 전 공장 지도부에서는 그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작되는 뜨락또르 시제품 브리가다 반장으로 임명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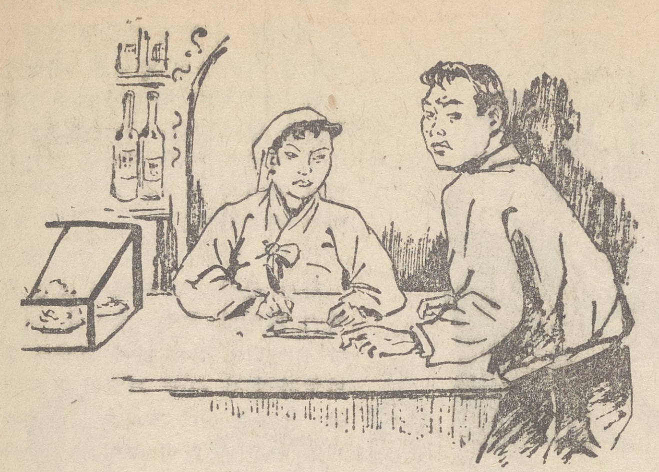
이러한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날 공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근삼이는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 정체 모를 사나이! 그는 근삼에게 닥아 오더니 《다시 한 번 손을 잡고 일해 봅시다. 당신은 우리를 도와 주어야겠소》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래일 아침 8시 반까지 동생 은숙을 출근시키지 말라는 것이였다. 그는 《W 25》 간첩 두목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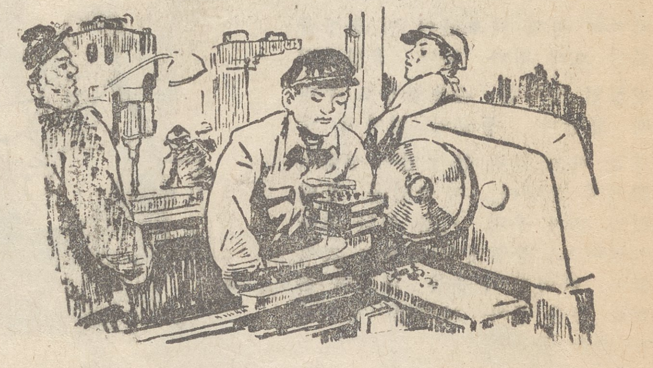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의 일시적 후퇴 시기에 뒤떨어진 동생 은숙을 찾으려 마을로 내려 갔던 근삼이는 치안대에게 체포되였고 그들의 위협과 공갈에 못 이겨 치안대에 가담하였던 일이 있었다. 지금 그는 바로 그때 치안 대장을 하던 자를 만났던 것이다.

근삼이는 자기의 이러한 과거를 지금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성껏 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오를 씻으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교활한 놈들은 바로 근삼의 이 약점을 노리고 있었다. 간첩 《W 25》 호의 조종을 받고 있던 정희는 근삼이가 일하고 있는 공장 식당 매표원으로, 성국은 근삼이가 책임지고 있는 뜨락또르 시제품 브리가다원으로 잠입하여 은밀히 호상 련락을 짓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근삼에게 올가미를 씌웠던 것이다.



간첩들은 시제품 생산을 방해하기 위하여 은숙이가 제작한 게ー지를 훔쳐 내여 그 치수를 틀리게 만들어 놓으므로써 기관부 시운전을 파탄시키려 하였으며 그 혐의를 핵심 로동자이며 은숙의 애인인 동철에게 들 씌우려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당 핵심을 당으로부터 유리시키며 동철이와 은숙의 애정 관계에, 동철의 브리가다 반장인 근삼이와의 사이에 불화를 조성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동철은 원쑤놈들의 눈초리가 자기 몸에 집중되여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조금도 동요없이 어디까지나 당에 철저히 의지하면서 배가의 창조적 열의를 발휘하여 종합 바이트까지 창안해 냄으로써 적들의 기도를 파탄시킨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공장 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주재 안전원들과 핵심 당원들은 공장 내에서의 수상한 자들을 여러 모로 찾게 되였다.

자기들의 기도가 수포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목이 자기들에게 집중되며 차츰 발 붙일 자리가 없어지게 되였음을 깨달은 간첩들은 최후 수단으로서 공장을 폭파시키고 도



망치려 한다.

바로 이때 뜨락또르 생산을 축하하러 농민 대표단이 이 공장을 찾아 오게 된다. 환영 공연에서 간첩인 성국은 손풍금수로 무대에 올랐다. 동철의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한 농민이 성국의 출연에 놀란다. 그 농민은 틀림없이 그가 우리 마을 치안 대장이였다고 동철에게 말하는 것이였다. 때마침 우유를 나르며 손님들 틈을 돌아 다니던 정희가 이 말을 듣는다.

이리하여 동철이가 농민과 합께 공장 안전 주재원실에 이 사실을 말하러 간 동안 교활한 간첩인 정희는 자기들의 정체가 폭로될 것이 념려되여 성국의 우유'잔에 독약을 넣어 그를 독살함으로써 내무 기관의 수사 사업을 파탄시키고 자기의 정체를 계속 은폐하려고 시도한다.

한편 근삼이는 자체의 고민 속에서 헤매던 끝에 용기를 내여 당 위원회에 찾아 간다. 그러나 문어구까지 간 그는 되돌아 오고 만다. 집에 돌아와 무서운 고민 끝에 더는 참을 수 없어 누이 동생 은숙에게 자기의 정체를 말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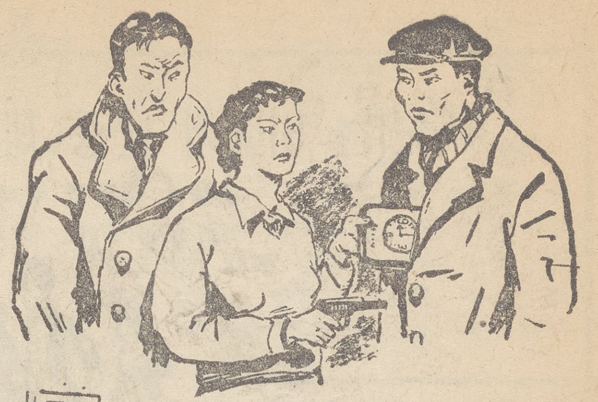




뜻하지 않았던 사실에 놀란 은숙은 처음에는 당황하였으나 마음을 진정하고 자백할 것을 오빠에게 충심으로 권고한다.

오랜 고민 끝에 자백할 것을 결심한 근삼에게 갑자기 정희가 찾아 왔다. 정희는 은숙이가 부상당하였다는 거짓말로 근삼이를 끌어 내여 자기들의 간첩 소굴로 데려간다.

간첩들은 근삼에게 강제로 시한 폭탄을 안기고 공장을 폭파시킬 것을 지시한 후 그의 뒤를 정희가 권총을 겨누고 따라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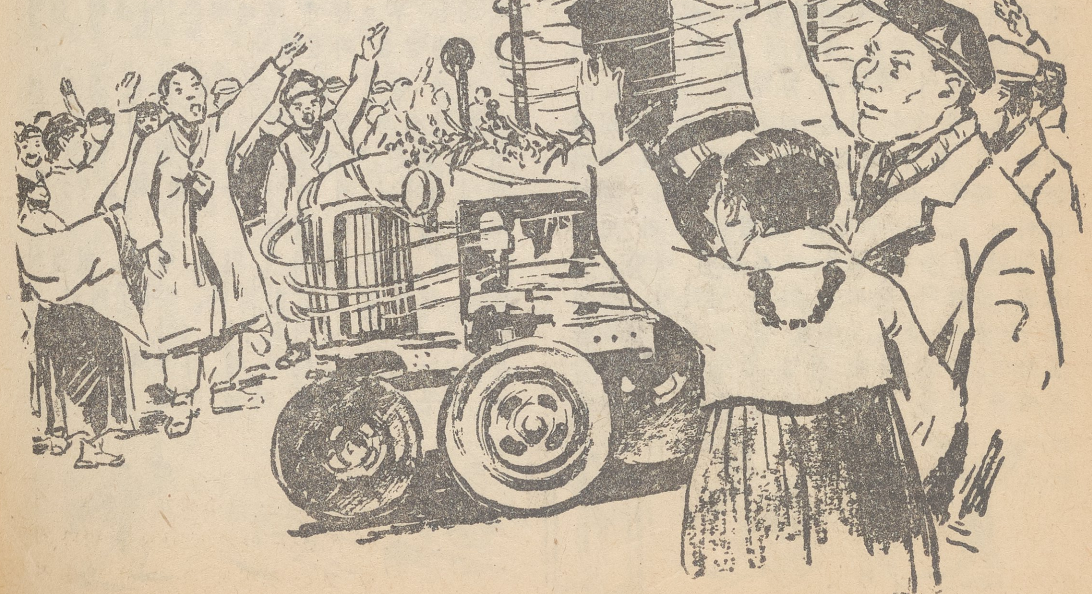
이렇듯 위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근삼은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가 취하여야 할 옳바른 길을 찾게 된다. 그는 시한탄을 들고 곧바로 당 위원회를 찾아 갔으며 모든 사실을 자백한다.

근삼의 자백과 내무원들의 활동에 의하여 간첩들은 일망 타진되고 근삼에게 들씌워 있었던 검은 그림자는 가시여 졌다.



정각 9시! 인민들의 들끓는 환호에 싸여 첫 뜨락또르가 전야로 내닫는다. 환호하는 군중들은 이 첫 뜨락또르 제작에서 로력적 위훈을 세운 근삼, 동철에게 꽃다발을 안긴다.

그림 현 재덕



우리는 이렇게 군중 체육을 발전시켰다

평남도 숙천군 송덕리 민청
위원장 지 삼 문



송덕리에서 체육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청년들 속에서 체육 스포츠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민청 중앙 위원회 제 3차 전원 회의 결정이 있은 후 부터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체육 스포츠 사업을 하기는 했다. 그러나 전체 청년들을 광범히 포괄하지 못하고 국한된 청년들로서 목적 지향성이 없이 산만하게 진행 되였었다. 그런 결과로 하여 당시 송덕리에는 체육 스포츠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는 동무는 전체 청년의 40%에 불과한 극히 적은 수'자이고 특히 녀성 청년들은 거의나 참가하지 않고 있었다. 또 체육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동무라 해도 종목이 매우 국한되였었고 인민 체력 검정의 전반적인 종목에 걸쳐 계획적인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청 제 3차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해 리 민청 위원회는 우선 전체 청년들을 체육 스포츠 활동에 광범히 끌어 들이는 데 첫 주목을 돌렸다. 리 민청 위원회는 우선 체육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갖도록 하기 위하여 청년들 속에서 강연, 해설 및 담화 사업을 통하여 군중 체육 사업 발전에 대한 당 정책과 민청 제 3차 전원 회의 결정을 해석 침투시켰으며 특히 체육 스포츠 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것은 청년들의 애국적 임무이며 민청 규약상 의무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애로로 된 것은 녀성 청년들에 대한 문제였는 데 그것은 그들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봉건적인 관념과 결부된 것이였다. 그래서 리 민청 위원회는 부모들의 봉건적 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해설 사업과 함께 부모들의 체육 스포츠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는 데 주목을 돌렸다. 여기서 큰 효과를 본 것은 인민 체력 검정 종목에 근거하여 월 1회씩 조직하는 체육회였다. 체육일에는 리 민청 위원회가 가장 완고하다고 생각되는 부모들이 관람하는 장소에 열성 민청원들을 파견했다.

자기 딸이 체육 운동을 하는 것을 꺼려하면서도 잘 달리거나 잘 치거나 하면 그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도 하고 나중엔 《아니 저 애가 누구네 애요?》하고 감탄하기도 했다.

이런 때를 놓치지 않고 열성 민청원들은 해설을 시작하였다. 《아주머니 체육이 재미 나지요?》 《아, 재미나다뿐이냐…》 《그런데 왜 아주머니는 ×× 동무가 체육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아니 내가 못하게 하다니…》 이렇게 해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부모들이 갖고 있는 낡은 관점을 퇴치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리 민청 위원회는 리 당 단체의 지도와 방조 밑에 체육 시설과 기자재들을 갖추는 데 주의를 돌려 청년들의 애국 로동으로써 2 개소의 청년 운동장, 5 개소의 수영장, 5 개소의 배구장과 특히 로인들을 위하여 2 개소의 궁술장을 만들었고 기타 각종 체육 기자재들을 마련하였다. 녀성 청년들을 위하여서는 그네, 널뛰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리 민청 위원회는 초급 민청 단체별로 매주 1회씩 총화하고 지역별로 설치한 경쟁 그라프, 속보판들을 통하여 찬양, 비판 사업을 기동성 있게 진행하며 우수한 초급 민청 단체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창을 하였다.

이와 같은 대책들에 의해 체육 스포츠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나 많은' 로인들까지도 체육 사업에 참가하게 되였다.

리 민청 위원회는 체육 스포츠 사업의 중심을 달리기 운동과 함께 륙상, 현수, 수류탄 던지기, 높이 뛰기, 수영 등 인민 체력 검정 종목에 두었다. 그런데 아침 한 시간 정도로서는 여러 개의 종목에 다 능숙하게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리 민청 위원회는 체육 스포츠 사업을 일상 생활화하는 방향에서 조직하였는데 여기서도 많은 성과를 얻었다. 인민 체력 검정 종목 중에서 가장 애로였던 것은 수류탄 던지기와 수영 등이였다. 그런데 이것을 청년들은 훌륭히 해결했다. 그들은 이앙기에 모'춤을 던지는 작업을 수류탄 던지기 운동과 결부시켜 하였으며 또 청년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다는 일정한 구간을 설정하고 그에 말뚝을 박아 놓고 왕래하는 도중에 달리기, 넓이 뛰기, 높이 뛰기, 수류탄 던지기 등을 실시하게끔 하였다.

청년들의 체육 사업의 성과는 인민 체력 검정 시험을 통하여 나타났다.

리 내 청년들은 176명이 인민 체력 검정 1급에 합격하였고 278명이 2급에 합격하였다. 그 중 34%는 녀성들이다.

특히 귀중한 성과라고 생각되는 것은 체육 스포츠 사업이 활발히 운영됨에 따라 청년들의 민청 조직 사상 생활에서 현저한 발전을 가져 온 것이다. 즉 민청 생활에서 규률이 확립되였고 동지 호상간 단결이 더욱 강화되였다. 뿐만 아니라 체육 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의 체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결과에 생산 사업에서도 큰 도움을 주었다. 실례로 지난 해에 비하여 작년에 1만 4천 200 공수에 달하는 로력을 더 획득하였다.

최근 우리는 체육 스포츠 사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의 결정과 내각 결정을 접수하였다. 당의 결정을 받들고 우리는 지난 기간의 자기 사업을 심중히 검토하고 결정 실행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웠다. 앞으로 리 민청 위원회는 축적된 경험에 근거하여 체육 스포츠 기술 수준을 일층 제고시키는 사업에 주되는 력량을 돌려 인민 체력 검정 시험에 전체 청년들을 합격시키는 동시에 1960 년도까지에는 2 명의 체육 명수와 10 명의 1, 2급 선수를 각각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나토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집단이다

강 학 순

북대서양 동맹(나토라고도 함)은 1949년 4월 4일 창립된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군사 쁠럭이다. 북대서양 동맹은 창립되는 첫날부터 10년간 세계 평화를 위협하며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는 추악한 역할을 놀았다. 그런데 미국을 두목으로 하는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나토가 마치도 《방위적》성격을 띤 《평화 유지 기구》라는 듯이 떠벌리고 있다.

그러나 나토가 걸어온 10년간의 력사는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반대하며 식민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의 침략적 대외 정책의 도구라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제 2차 세계 대전의 포연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벌써 미 제국주의자들은 나토와 같은 침략 쁠럭을 조작함으로써 평온하던 인민들의 머리 우에 새 전쟁의 검은 구름이 떠돌게 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원자탄을 휘두르며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 십자군》의 원정을 떠들어 대면서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압살하고 자기의 침략적 야망을 달성하려고 날뛰였다.

미제는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포위하기 위하여 자기 령토로 부터 수천 수만 키로메터나 떨어진 자기의 추종국과 예속국들에 군사 기지들을 설치하고 그 기지들에 원자 및 로케트 무기들을 끌어 들였다. 현재 미국은 타국 령토에 1천 개 이상의 군사 기지를 설치하였으며 1백 37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 기지들을 리용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자 및 수소탄을 실은 군용 비행기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쏘련 및 기타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국경 방향으로 띄워 보내고 있다.

원자탄이 이미 그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국제 무대에서 력량 대비가 근본적으로 변경된 후에도 미제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기의 침략적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발악하였다.

미제 침략 계층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북대서양 동맹 조작자들이 이 쁠럭에 서부 독일을 끌어 들이고 서부 독일 군대를 원자 및 수소 무기로 장비시키며 서독 령토를 원자 전쟁의 기지로 전변시키는 로선을 취하였을 때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상은 남김 없이 드러났다. 최근 50년 동안에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을 도발하여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 준 서부 독일 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하에 급속히 장성하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 계층은 복쑤주의적 기분으로 가득찬 히트러 장군 및 장교들을 서부 독일 련방군의 요직에 들어 앉히고 나토의 책임적 직위에 임명함으로써 그들을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를 반대하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침해하는 돌격대로 리용하려고 행동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북대서양 동맹을 비단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반대하는 책동에만 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평화 애호 국가들을 반대하여 식민지 통치 제도를 유지하는 데 리용하고 있다.

1956년 영, 불 침략자들은 미국 지배층과 그의 조종 하에 있는 나토의 적극적 지지 밑에 애급을 침공하였으며 그 다음 해에 가서는 미국이 직접 쒸리야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감행하려고 책동하였다.

오늘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미국이 나토를 통하여 공급한 무기로써 알제리아 인민을 공격하고 있으며 케니아, 벨기령 콩고 및 기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도 식민지 통치배들은 류혈적 참상을 빚어 내고 있다.

나토 참가국들은 나토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일련의 아세아 나라들의 내정 문제를 빈번히 토의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나토가 조작된 후 10년 동안에 인류는 수차에 걸친 파멸적 전쟁 위협을 체험하였으며 또 체험하고 있다.

국제 긴장 상태는 의연히 계속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국가들과 그 추종국들에서 인류의 고귀한 재부가 군비에 탕진되고 있다.

나토가 존재한 10년간 그의 군사비 지출은 나토 경제 전문가들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미 5천억 딸라에 달하였으며 1957년에 지출한 직접적 군사비만 해도 600 만 딸라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방대한 군사비 지출은 그 성원국가 근로자들의 량 어깨에 가중하여 가는 중하를 들씌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쁠럭 참가국들의 경제를 파탄에로 이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평화와 안전의 유지 공고화를 위하여 싸우는 쏘련은 나토의 침략적 성격을 제거하기 위하여 나토와 와르샤와 조약 기구간의 불가침 조약의 체결 그리고 구라파 집단 안전 조약에 의한 군사 쁠럭의 교체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나토 성원국들은 이러한 제의를 거절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방위》기구가 아니라 침략적 군사 쁠럭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지난 10년간 미제가 조종하는 나토가 추구한 침략적 목적은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강대한 력량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단호한 배격에 직면하여 그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통일적인 보조가 뒤흔들리고 있다.

아이젠하워 자신도 나토 성원국들 간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발로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한집안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을 개탄하였다.

영국과 불란서는 나토 내에서의 미국의 독판치기에 불평을 늘어 놓고 있으며 일련의 나토 성원국들은 자국 령토에 미국의 원자 로케트 무기 기지 설치를 주저하고 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불란서는 이미 자기의 공군 부대를 나토군 휘하에서 떼여 내였으며 지중해 함대를 또한 떼여 내기로 결정하였다.

제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나토의 단결은 한굴에 기여든 사자와 승냥이의 단결인 바 이는 지금 모래 터 우의 루각으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국제 무대에서 제멋 대로 행세할 수 있던 시기는 영원히 지나 갔다. 오늘 세계에는 쏘련을 선두로 한 평화와 사회주의 진영의 무비의 확고한 력량이 존재하고 있다.

북대서양 쁠럭 참가국들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종하에서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들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섬멸적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며 자본주의 체계 자체가 종국적으로 멸망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명백하다.



종교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당의 태도

맑스—레닌주의 당은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의식적이며 전투적인 투사들의 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 당은 근로 대중에 대한 착취 계급의 정신적 압박의 도구인 종교적 신앙에서 나타나는 편견들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일체의 종교적 편견이나 미신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한다.

레닌은 일찌기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면서 《우리는 종교가 국가에 대하여 사사이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우리들 자신의 당에 대해서도 사사이라고는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종교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사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국가와 분리되여 있어야 한다는 것, 국가가 종교적 의식을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공민이 어떤 종교를 신앙하거나 또는 아무 종교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로 되거나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종교가 프로레타리아트 당과의 관계에서도 사사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맑스—레닌주의 당은 당원들이 온갖 사회적 및 정신적 억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어떠한 종교적 사상과도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

종교를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해독성을 해설하며 과학적 세계관을 교육 선전하며 동시에 근로자들을 사회의 혁명적 개조를 위한 투쟁에 적극 끌어 들여야 한다. 그러나 종교를 종국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비과학성을 폭로하며 계몽 사업을 진행하며 유물론을 선전하는 사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종교, 미신 등을 종국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발생시키며 종교를 퍼뜨릴 수 있게 하는 물질적 조건인 착취 제도를 소멸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자본주의 사회를 폐절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종교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최후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산 모범을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 명백히 보여 준다. 생산 수단을 사회주의적 소유로 개조하고 착취 계급을 청산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함으로써 쏘련에서는 종교를 산생하며 종교를 전파할 지반이 없어 졌다. 특히 공산주의에로 점차 이행하는 투쟁 과정에서 오늘 쏘련 근로자들은 종교적 편견, 미신으로부터 해방되였다. 산업에서의 거대한 기술의 발전, 농촌 경리의 기계화 등 공산주의 건설 행정에서의 제반 성과는 종교적 편견, 미신을 뿌리채 뽑아 버렸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런 투쟁도 없이 저절로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의식은 그 발전에 있어서 사회적 존재에 뒤떨어지는 것만큼 종교적 편견도 그 물질적 기초가 소멸되였다고 해서 곧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것들은 일정한 기간 남아 있게 된다. 특히 종교는 가장 보수적 이데올로기로서 일단 발생한 후에는 수백만 사람들의 머리를 사로 잡아 관습의 힘을 획득하여 가지고 세대에서 세대에로 전달되며 계승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하에서도 종교적 편견은 비록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기초는 소멸되였으나 일정한 기간 상당한 부분의 주민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하에서도 꾸준히 완강하게 반종교 선전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가 언제나 과학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매달리며 또 과학적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주민의 층에 희망을 거는 만큼 반종교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근로 대중들에게 과학 지식을 보급하며 그들을 과학적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교양하는 문제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반종교적 사상 투쟁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권이 인민의 수중에 있고 사회주의 경제 토대가 확립된 조건하에서 종교를 발생시키는 사회—물질적 기초는 기본적으로 청산되였다. 그리고 로동 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 대중의 계급 의식의 제고와 과학 기술의 발전은 종교적 편견을 결정적으로 쫓아 내고 있다.

그러나 국제 반동이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반대하여 발광적으로 날뛰고 있으며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 승만 도배들이 종교를 침략적 반혁명적 반동 음모의 리용물로 삼으려고 책동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아직 극히 일부 나마 주민들 중에 남아 있는 종교적 편견을 청산하는 문제는 중요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매개 공민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자유며 각자의 량심에 속한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라고 해서 이것이 종교의 간판 밑에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 리 승만 역도들과의 련계 하에 반동적인 사상을 전파하며 우리의 국가 사회 제도를 반대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하는 등 반혁명적인 반동적 정치 음모를 하는 것까지도 내버려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라는 문제와 종교의 탈을 쓰고 하는 일체 반동 분자들의 반혁명 활동을 엄격히 구별하여 종교의 탈을 쓴 반혁명 분자들에게는 엄격한 독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라고 해서 그것이 반종교 선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신앙의 자유란 행정적 방법으로 그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모든 공민들에게는 실제상 종교를 신앙할 자유가 있는 동시에 종교를 반대할 자유도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을 온갖 압박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근로자들의 선봉대인 우리 당은 종교에 대하여 중립적일 수 없다. 왜냐 하면 종교는 정신적 압박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이 종교와 미신으로부터 해방되여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우리 당은 창건 이래 꾸준히 당원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여 근로자들 속에 과학 지식과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보급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 왔는바 이것은 종교적 편견으로부터 근로자들을 해방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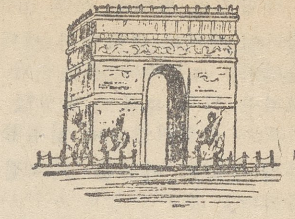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에게 높은 과학 지식을 소유하며 과학적인 변증법적 유물론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사회주의적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불가결의 요소로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 속에서 그들을 종교적 편견, 미신 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에서의 강력한 무기로 된다.

청년들은 미신과 종교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그것을 자기의 생활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며 자연 과학 지식과 사회—정치적 지식을 광범히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위의 일부 락후한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미신과 종교적 편견을 극복하도록 선전 해설 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

특히 종교의 간판 밑에서 반동적인 사상을 전파하며 우리의 국가 사회 제도를 반대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하는 등 반혁명적 반동적 정치 음모를 감행하는 자들과는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만수의 세계 려행



불란서에서

내가 탄 로케트 비행기 《청년생활》 호는 본을 떠나 번개 같이 불란서의 수도 파리를 향하여 날아 갔다.

세느강이 뱀처럼 흐르고 에펠탑이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인다. 비행장에 내린 나는 곧 바로 파리의 중심 거리인 샹 제리제를 걸어



갔다.

거리에는 찬 바람이 불고 쓸쓸해 보였다. 큰 백화점 앞에 녀성들이 웅기중기 모여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였다.

《아이구 수입은 몇푼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오르니 어디 살 수 있나》, 《이게 다 드골이 정치를 잘 못하는 탓이야》, 《그런 놈의 정부는 때려 부셔야 해》… 원망과 한탄이 여기 저기서 터져 나왔다.

백화점 벽에는 《오늘부터 식료품 가격 10% 인상》이라고 크게 써 붙여 있다.

나는 한 처녀를 따라 게딱지 같은 오막살이가 무질서하게 늘어선 맨끝에 있는 그의 집에 다달았다.

처녀의 어머니의 눈은 부어 오르고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알고 보니 남편과 아들 하나는 알제리아 전쟁에 끌려가 죽었는데 하나 남은 앙드레 마저 강제 징모를 당하여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작년 6월에 드골이 정권을 장악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달콤한 약속을 하였겠소, <알제리아에서의 평화 회복>, <불란서의 부흥>, <개혁>,. <불란서를 구라파의 1등 국으로 만들겠다> 등등…

우리는 속았습니다. 근 100 만 명의 군경을 동원하고 매일 20 억 프랑을 써가면서 5 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지만 불란서는 패전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골은 금년에 군사비를 1만 6 천억 프랑이나 배당하고 있으며 10 만 명 이상의 청년을 전쟁터로 또 내몰려 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불란서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생산도 감퇴되지 실업자, 반실업자는 근 60 만 명이나 되쟈요.》

방 안의 침울한 공기는 밖에서 울려 오는 우렁찬 웨침 소리로 흐려졌다.

나는 공화국 광장으로 달려 갔다. 그곳에서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한 군중 대회가 진



행되고 있었다.

《파쑈 정권을 타도하라》, 《전쟁을 걷어 치우고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자유를 주라!》, 《물가 인상을 반대한다》, 《군사비를 교육비에 돌리라》 하고 쓴 프랑가드들이 보인다.

나는 시위 대렬을 따라 거리를 행진하였다.

《자유의 녀신》 립상이 서 있는 곳을 지날 때였다. 요란한 사격 소리가 들리더니 앞에서 걸어 가고 있던 몇 사람이 쓰러 졌다. 군경과 시위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시위가 끝난 다음 나는 소르본느 대학에 다니는 학생과 함께 라텐 거리를 걸었다. 대학은 텅 비어 있었다. 그 학생은 침울한 낯으로 말하였다.

《대학생들은 교육비 지출의 증가를 요구하여 1주일 전부터 동맹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란서의 학교들은 말이 아니지요,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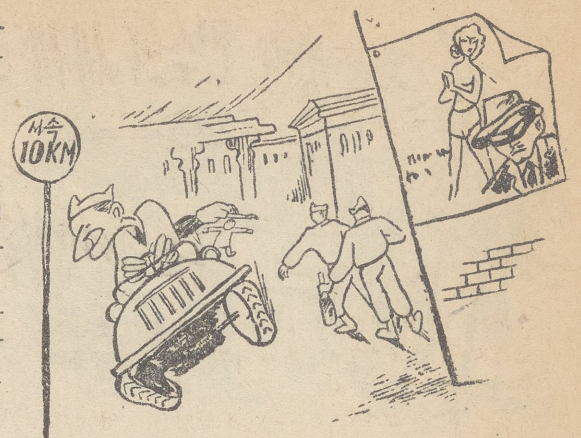
는 교육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학교들은 수리를 못해서 다 쓰러져 가고 교실은 배좁고 교원은 부족하고 게다가 수업료가 어찌나 비싼지 나도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이대로 기다리다가는 학교를 못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듯 황혼이 깃들어 세느강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몽파르나스 거리 바닥에는 술 취한 양키들이 행패를 부리면서 싸다니고 있다. 《U. S》 마크를 단 자동차가 《시속 10 키로메터》라고 써 붙인 표식 옆을 질풍 같이 스쳐 어린 아이를 안은 녀인을 깔아 눕히고 지나 갔다. 음탕한 째즈 소리가 울리고 라체화를 그린 미국 영화 광고가 네온 싸인에 명멸하고 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엘리제 궁전을 찾아 갔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 서니 호화로운 넓은 방에 코가 크고 목이 굵은 장군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가 바로 불란서 대통령 드골임을 인차 알아 챘다. 그는 무엇이 그리 유쾌한지 자못 만족한 듯이 천장을 쳐다 보면서 혼자 벙글벙글 웃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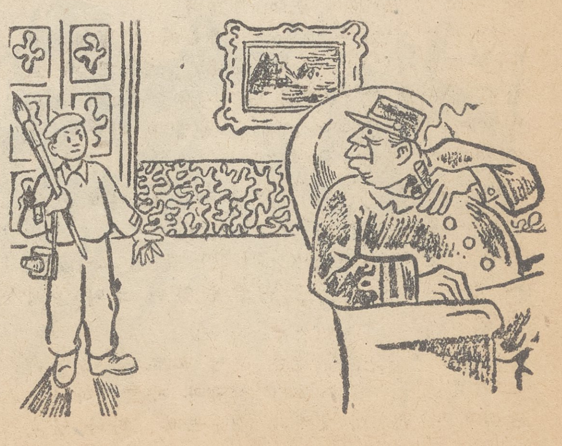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봅니다.》나는 다짜고짜 말을 끄집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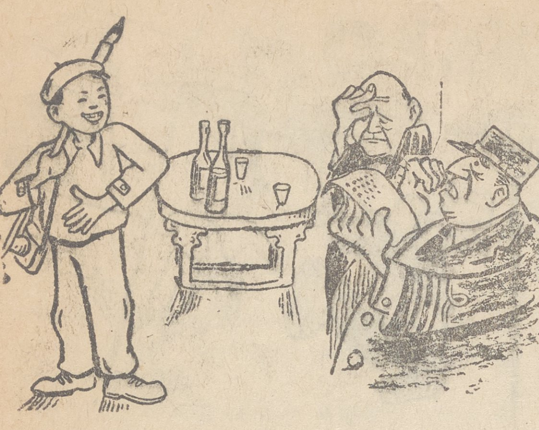
《누구요?》 하고 그는 꿈에서 깨여난 듯이 고개를 돌리면서 물었다.

나는 그와 인사를 하고 말하였다.

《제 2차 세세 대전 직후부터 당신이 힘과 권력이 제일이라고 주장한 마캬베리를 신주 모시듯 하고 파쑈 정권을 수립하려고 애써 온 것을 세상 사람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드골은 내 말을 가로 채면서 호통을 쳤다.

《나는 바로 지금 그때 일을 회상하고 있었





소, 처음에는 쓰디쓴 실패를 맛보고 시골 구석에 처박혀 한숨으로 세월을 보낸 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이제 내 세상이 됐지.

힘, 권력, 파시즘, 이것은 나의 철학이고 신념이요.》 그의 류창한 불란서 말은 거침 없이 흘러 나온다.

《내 명령을 받드는 사람들로 국민 의회를 채워 놓았지… 후방은 든든해 졌소. 이제 서부 독일과 함께 나토의 앞장에 나설 판이요. 핫핫핫》. 드골은 방이 떠날 듯이 너털 웃음을 쳤다.

이때 마침 비서가 들어와 그에게 《비밀》이라고 쓴 문건을 주었다. 그것을 뜯어 본 드골은 《아이구 맥밀란이 모쓰크바에 가서 쏘련 지도자들과 회담을 한 것만 해도 분한데 독일 문제, 핵 무기 금지, 중앙 구라파에 원자 무기 없는 지대를 설정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회담



을 하는 것을 지지해 나왔으니 이젠 큰 일 났군, 큰 일 났어, 서방의 통일 전선은 부서졌고 나토는 망했어 망해…》 하면서 머리를 움켜 쥐고 술도 마신 데다 분'김에 뻘겋게 단 눈을 두리번 거렸다.

그때 갑자기 문이 탕하고 열리더니 머리를 붕대로 감고 먼지 투성이가 된 두 사람이 헐레벌떡 뛰여 들어 왔다. 자세히 보니 드골의 신복인 《새 공화국 옹호 투쟁 동맹》의 두목 수스뗄과 사회당의 괴수인 기 몰레였다. 《대통령 각하 리옹에서 우리는 참패하였습니다》 수스뗄은 머리를 푹 숙였다. 《지방 자치 기관 선거에서 우리는 망했습니다. 파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곳에서 공산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무엇이!》 드골은 큰 코를 씰룩거리면서 소리쳤다. 《그래 뭘 하고



있었오. 밥통 같으니, 아, 작년 11월 국민 의회 선거 때 하던 솜씨가 있잖는가. 테로, 체포… 그걸 다 무엇에 썼단 말인가, 응?!》, 《누가 그걸 모릅니까, 하는 데'까진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걸 어떻게 합니까. <이 개같은 자식들 또 속을 줄 아니> 하는게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수스뗄이 주저 앉아 골통을 움켜 쥐고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아 허리를 꾸부리고 서 있던 기 몰레는 침울한 낯으로 눈치를 살피면서 《선거에서 사회당도 망했습니다. 당신만 그저 신주 모시듯 따라 다니다 요꼴이 됐지요. 방상 오리올을 비롯하여 수 10 명의 사회당 간부들이 <반역자 기 몰레와 손을 끊겠다>고 하며 탈당해 버리지, 일반 당원들은 나를 죽일 놈이라고 욕하면서 공산당에 찬성 투표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몸 둘 곳도 없게 됐습니다 그려》 이때 며칠 전에 알제리아로 떠났던 수상 드브레가 들어 왔다.

《왜 벌써 왔나, 그래 그쪽 형편은 어떤가?》 하고 드골은 행여나 무슨 좋은 소식이나 들어 볼가하고 다우쳐 물었다. 《아이구, 대통령 각하 말도 마십시요. 알제리아에서는 민족 해방군이 총 공세를 취하였습니다. 각하가 난공불락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전기 철조망 요새도 단숨에 돌파되고 그곳에 있는 불란서군 수개 사단이 섬멸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드브레와 함께 온 《불란서 련방》 집행 위원회 회의 의장은 말을 이었다. 《지금 회의장은 벌둥지 같이 되였습니다. 각하의 지시 대로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불란서 련방에 묶어 놓



으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만 도리여 톡톡히 봉변을 당했지요. 아프리카인 대표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것이다. 련방이니 무엇이니 하는 허튼 수작은 그만 두고 즉시 독립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무기를 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고함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암만 종을 울려야 소용이 있어야지요.》

《엑기, 미련한 밥통들 같으니…》 드골은 손을 내저으면서 뇌까렸다. 《아이구, 머리야 오늘은 왜 이런 불길한 소식만 들려 오나 엥이, 속상해.》 이 난통에 나는 드골과 작별 인사도 못하고 엘리제 궁전을 나왔다.

거리 거리는 로동자, 학생, 소상공업자, 녀성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공장, 사무 직장들에서는 작업이 정지되고 있었다.



플랑카트를 든 한 청년 로동자가 나에게 씩씩하게 말하였다.

《우리 불란서는 혁명의 전통에 빛나는 나라이고 인민들은 근면하고 자유를 생명 보다도 아낍니다. 우리 선조들은 1789 년에 혁명을 일으켜 바스츄유 감옥을 들부셔 봉건 제도를 없애 치웠지요. 파리 콤뮨에 대한 추억을 불란서 로동자들은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불란서를 인민의 나라로 사회주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공산당의 주위에 뭉쳐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세느강에 비친 저녁 노을은 시위자들의 엄숙한 얼굴에 반사되였고 플랑카트들과 기'발들을 더욱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글•최 무 용
그림•리 의 명





보루 공격 놀이

ㄱ. 노는 인원—두 사람 (보루를 지키는 사람과 그를 공격하는 사람)

ㄴ. 준비할 것

그림과 같은 판과 보루를 지키는 사람이 사용할 말 2개와 보루를 공격하는 사람이 사용할 말 24개가 있으면 된다.

ㄷ. 말의 배치

공격자는 자기 자리에 (그림의 흰 동그라미) 24개의 말을 채워 놓고 보위자는 보루 안의 9개의 새까만 동그라미 중 임의의 곳에 2개의 자기 말을 놓는다.

ㄹ. 노는 방법

△ 공격자가 먼저 말을 쓰되 공격자는 보루 안에서나 밖에서나를 불문하고 자기의 말을 그림에 표시된 쌍선을 따라 한 번에 한자리씩 가야 한다.

보위자의 말은 보루 안에서나 밖에서나를 불문하고 쌍선을 따라 곧추 갈 수도 있고 단선을 따라 모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 한 번에 한 자리 이상은 가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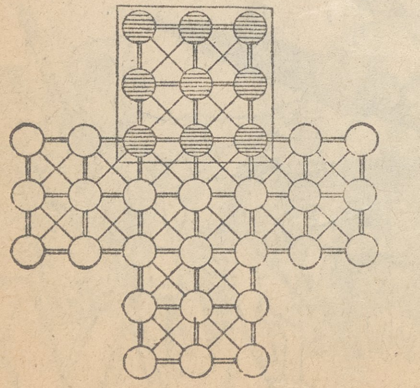
△ 보위자의 말이 공격자의 말을 따먹는 방법은 보위자의 말의 앞, 뒤, 옆 어디에나 공격자의 말이 있고 그 다음 자리가 비여 있을 때 보위자의 말이 공격자의 말을 밟고 넘어 빈 자리를 차지하면서 밟은 말을 따먹는다.

만약 공격자의 말이 그 줄의 마지막까지에 차있지 못하고 빈 자리가 있으면 보위자는 빈 자리까지 사이에 몇 개의 말이 있든 단번에 다 따먹을 수 있다. 단 보위자의 말과 공격자의 말 사이에는 빈 자리가 있으면 따먹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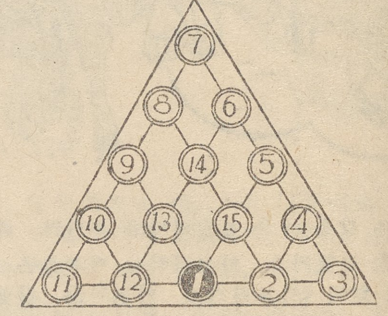
ㅁ. 승패

△ 보루를 공격하는 자가 자기의 말로 보루 안의 새까만 동그라미를 전부 점령하거나 혹은 보루 밖에서 보위자의 말을 전부 포위했을 때에는 공격자가 이긴 것으로 된다.

△ 보루를 지키는 자가 공격자의 말 16개를 따먹어 공격자의 말이 8개로 되면 보루를 지키는 자가 이긴 것으로 된다. (8개의 말만으로는 보루 안의 9개의 새까만 동그라미를 점령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개의 말》 (머리 쓰기)



그림과 같은 판과 14개의 말을 준비한다. 다음에 판의 수'자①지점을 제외한 기타 전체 지점 (동그라미)에 말들을 배치한다.

말쓰기는 다른 말을 하나씩 뛰여 넘어 그 다음 빈 자리로 옮기는 데 (한칸씩) 뛰여 넘은 가운데 말은 놀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머리 쓰기의 요점은 이렇게 하여 제일 적은 회수 (13회)로서 마지막 한 마리씩 남기고 전부 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4월은 도시 춘기 청소 미화 월간이다

—몸에서부터 주위 환경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고 알뜰하게 꾸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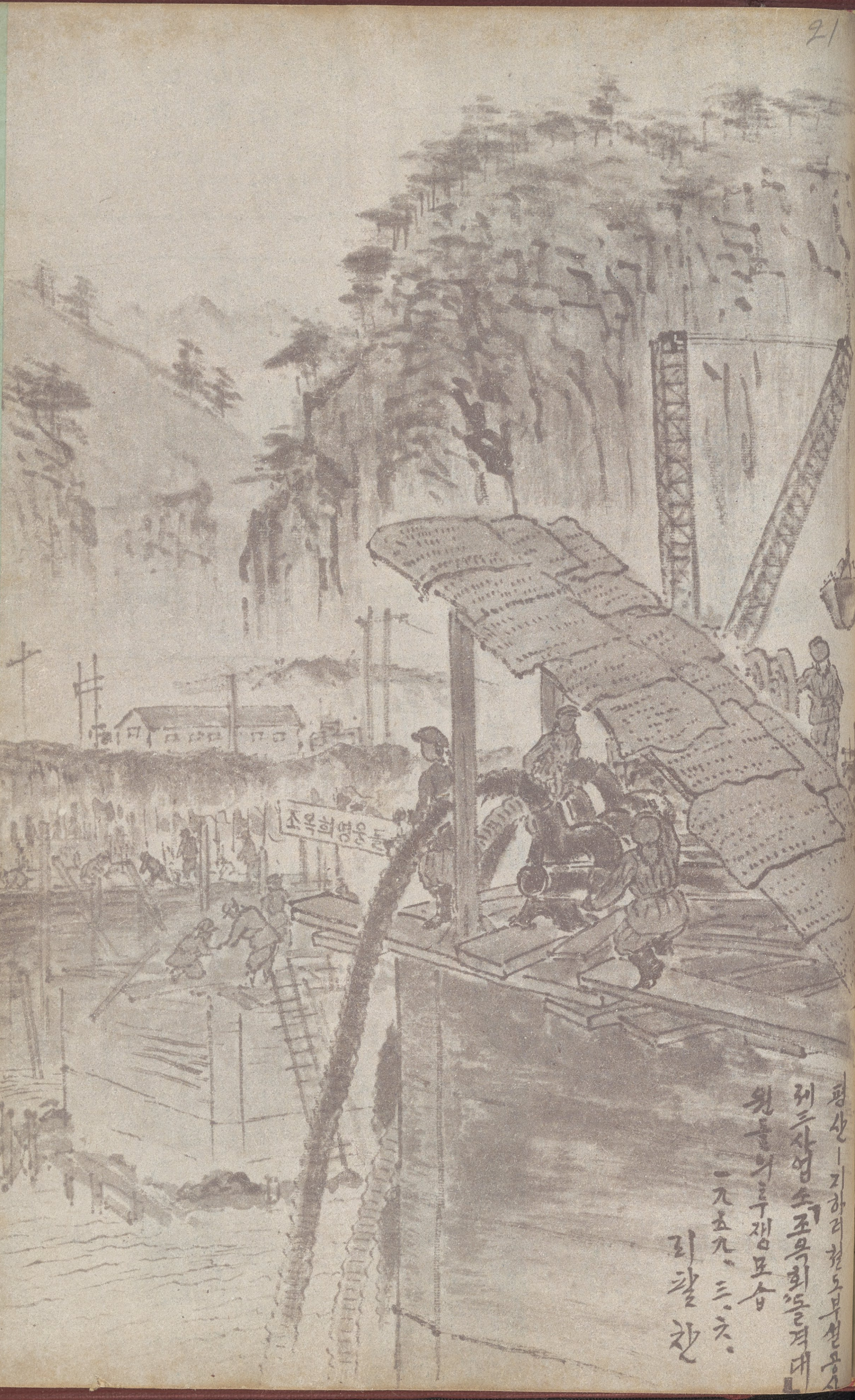












평산—지하리 철도부설공사
제三사업소 조옥희돌격대
원들의 투쟁모습
一九五九. 三. 六.
리철찬